

퍼스널 컬러리스트

전혜연 강사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강. 퍼스널컬러란?

1. 퍼스널컬러란?

-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의 색(피부색, 눈동자색, 머리카락 색 등)을 분석하여, 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컬러를 찾는 것
- 퍼스널컬러를 헤어, 메이크업, 악세사리 등에 함께 적용하면 ‘어울린다’, ‘조화롭다’는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 같은 색이어도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는 윙톤/ 차가운 느낌을 연출하는 쿨톤으로 나뉘며, 이를 바탕으로 보통 4계절로 퍼스널컬러를 진단한다.

2. 윙톤/쿨톤 그리고 괴테



(1749.8.28. ~ 1832.3.22.) 독일의 시인이자, 작가, 과학자였던 그는 미술에도 조예가 깊었고, 본격적인 색채연구를 시작하게 되면서 ‘괴테의 색채론’을 집필하게 되었다. 괴테의 색 이론은 색이 빛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빛과 어두움,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인간의 인식 사이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색이 프리즘을 통해 백색광이 분해된 결과라는 뉴턴의 이론을 거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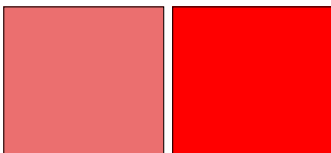
대신 괴테는 빛과 어둠사이의 상호작용과 인간의 관찰자의 생리적,심리적 반응에서 색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괴테에 따르면 색상에는 밝은 색상과 어두운 색상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노란색과 같은 밝은 색상은 빛이 강해지고 눈이 더 높은 수준의 밝기에 노출될 때 나타나는 반면 파란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은 빛의 감소 또는 약화로 인해 발생. 이 개념은 색이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혼합하여 만들어졌다는 뉴턴의 이론과 상반된다.

그는 밝음/따뜻함을 나타내는 YELLOW BASE와 어두움/차가움을 나타내는 BLUE BASE사이 모든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윙톤/쿨톤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들어, 두가지 ‘빨강’이 있는데 왼쪽의 빨강은 따뜻함을 나타내는 윙톤의 빨강, 오른쪽은 차가움을 나타내는 쿨톤의 빨강으로 볼 수 있다.



순수한 기본색인 빨강,노랑,파랑을 바탕으로 각각 두색씩 섞어서 만든 주황,녹색,보라 총 6색을 바탕으로 괴테의 색상환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각각의 컬러는 심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색의 영역을 음(-), 양(+)으로 분리하기도 했다.

3. 요하네스이텐과 캐롤잭슨

●요하네스 이텐의 주관적 색조

: 독일의 예술학교 바우하우스 교수 요하네스 이텐(Johannes Itten, 1888~1967)은 학생 을 지도하던 중 개인이 선호하는 색과 그들의 신체색이 4계절 색상과 관련 있음을 깨닫고, 사람에게 대한 주관적인 색을 4계절 색채 유형으로 구분하고 비교 분석한 결 과 4계절 색채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가 바로 퍼스널 컬러 기초 이론(4계절 색채론)의 선구자입니다.

●캐롤잭슨 : 요하네스이텐의 패션아카데미를 수료한 그녀는 어느날

“내가 입으면 아파보이는 교복이 친구가 입으면 왜 이뻐보일까?” 생각했고 4계절 색채론을 발전 시켜 퍼스널 컬러의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캐롤잭슨은 1981년에 'Color Me beautiful' 이라는 퍼스널 컬러 서적을 출간하면서 사람의 이미지를 4계절로 분류했고, 각각의 계절 팔레트에 어울리는 패션, 메이크업 을 제안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퍼스널 컬러 개념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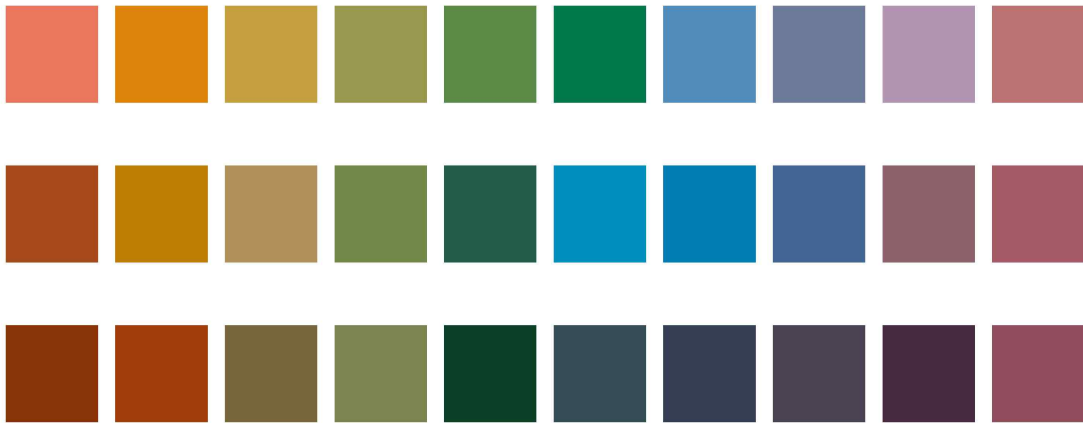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색체계인 PCCS 창안 및 4계절이론을 확대시켰고, 이는 우리나라 컬러 및 패션에 큰 영향을 미쳤다.

4. 사계절의 특징

① 봄웁: 고명도&고채도/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색감/노란기있는 밝은색이 주를 이루며 화사하다



② 가을웍: 저명도&저채도/+gray(탁색),+black(암청색)/노란기있는 어두운색이 주를 이루며 차분하다



③ 여름쿨: 고명도&저채도/밝고 부드러움, +white(명청색) /푸른기있는 밝은색이 주를 이루며 산뜻하다.



④ 겨울쿨: 저명도&저채도, 고명도&고채도/+black(암청색) 어두우면서도 선명

한 색이 공존/푸른기있는 색이 주를 이루며 선명하고 강하다



5. 퍼스널컬러가 중요한 이유?

● 초두효과(primacy effect) : 초기 정보가 지속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여 후속 정보의 영향력이 적게 작용하는 효과

--> 각인된 첫인상을 바꾸려면 약 60번의 만남을 해야한다.

● 메라비안의 법칙: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 중 시각적요소가 55%/청각적요소가 38%/ 나머지 7% 언어적 요소이다.

시각적 요소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컬러. 사람들이 가장 쉽고 강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컬러이기 때문에 퍼스널컬러가 중요하다.

- ① 중요한 상황에서 나를 돋보이게 한다
- ② 피부가 더 예뻐보이고, 아름답게 해준다
- ③ 유행에 타지 않는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
- ④ 합리적인 쇼핑,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⑤ 외면 뿐만 아니라 내면 자신감 향상에 큰 도움을 준다.

퍼스널컬러리스트 제2강. 퍼스널컬러의 오해와 진실

1. 퍼스널컬러는 바뀌나요?

: 퍼스널컬러가 바뀌느냐, 안바뀌느냐에 대해선 현재까지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1강 정의에서도 설명이 나와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체색을 분석하여, 이와 어울리는 컬러는 찾는 것으로 정의.

why? 현재의 신체색은 타고태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바뀔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연령,사는지역,피부태닝, 컨디션에 따른 피부 낮빛변화, 호르몬의 영향 등 그래서, 퍼스널컬러를 진단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

① 평소 컨디션인지

② 계절/톤도 중요하지만 개인마다의 '기준점'찾아내기

이 두가지를 좀 더 고려하고 퍼스널컬러를 찾으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기준점 대표 3가지]

①색상: 어떤 색과 유사하다는 것에 따른 시각 인식 속성이며, 빨강,노랑,초록, 파랑과 가까운 쌍으로 구분하는 폐쇄적 형태를 취한다. 인간은 약 200가지의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

②명도: 색채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낸 색의 속성. 인간의 눈은 명도에 가장 민감하며,약 500단계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

③채도: 색의 맑고 탁한 정도 혹은 순수한 정도를 나타내며, 인간은 약 20단계 정도의 채도를 구별할 수 있다.

[퍼스널컬러 코칭시 유의사항]

①채광(자연광)이 잘 드는 곳에서 진행한다.

②오전10시-오후3시 사이 진단을 가장 추천한다.

③민낯 or 톤업기능이 없는 선크림까지만 바르고 진행한다.

2. 잘 어울리는 컬러가 봄월이면, 메이크업도 봄월인가요?

--> 내가 일체형인지 or 차이형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① 일체형: 컬러&메이크업&헤어&악세사리 등이 모두 동일한 타입

② 차이형: 컬러&메이크업&헤어&악세사리 등 파트마다 기준점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실제 코칭을 해보면 차이형이 70%, 일체형이 30%)

특히, 메이크업에선 컬러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선'을 고려해서 코칭해야 한다.

- ① 직선형
- ② 곡선형

3. 퍼스널컬러 코칭할 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아는 방법

- ① 얼굴라인&얼굴 전체에 형광등이 켜지는 것처럼 밝아진다.
- ② (남성) 수염or수염자국이 없어진다
- ③ (여성) 인중이나 턱아래 솜털이 없어보인다
- ④ 다크서클, 기미가 없어보인다
- ⑤ 이미지와 어우러짐이 좋다.



퍼스널컬러리스트 제3강. 색이론1

1. 색이란?

- 시지각적으로 물리적 대상인 빛과 그 빛의 지각 현상
- 물리학적으로 색은 가시광선이라고 부름
- 빛을 발하는 광선
- 색의 물리적 현상인 빛과 그 빛의 지각 현상만을 가리킨다
- 빛, 조명(Light)

[색 지각의 3요소]

빛(광원) - 물체 - 관찰자

2. 색채란?

① 색채란

- 물체의 색, 물체가 발광하지 않고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색
-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보는 것을 '색채'
- 물체의 지각(표면지각)을 수반하는 것이고, 심리적인 성질을 지님
- =색깔(Color)
- 색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거나 다루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느낌이나 판단, 연상등이 함께 따라다니게 된다.

② 색채지각

- 수많은 자극중에서 색채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을 색채지각이라고 한다.
- 빛이 없는 곳에서 색채를 지각할 수 없다
- 물체의 색은 물체에 흡수된 빛이 아니라 반사된 빛으로 나타내며, 색은 밝고 어둠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다.

③ 뉴턴의 분광실험과 가시광선

: 1666년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을 이용하여 각 파장의 굴절률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백색광을 분광시켜 색을 밝혀냈다. 이를 통하여 빛에 포함된 파장 중에서 굴절률이 작은것부터 빨강~보라 순서로 서로 분광되는 것을 알아낸 것이다.

스펙트럼은 무지개색과 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색의 띠를 말하며, 뉴턴은 이 분광실험에서 분광된 단색 광원들의 재결합으로 다시 백색 광원이 얻어지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인간의 눈으로 지각 가능한 가시광선의 파장 영역은 380nm~780nm이며, 가

시광선은 고유 파장 영역에 따라 고유한 색채로 지각되는 것이다.

빨강: 625~780nm

주황: 590~625nm

노랑: 565~590nm

초록: 500~565nm

시안: 485~500nm

파랑: 440~485nm

보라: 380~440nm

780nm ↑ : 적외선IR, 전자파, 레이더, TV파, 라디오파

380nm ↓ : 자외선UV, X선, R선

3. 빛의 특성

- 빛의 흡수: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물체 내부에 흡수된 빛의 양을 파장별 흡수로 나타낸 것을 흡수 스펙트럼
- 빛의 반사: 대부분의 유채색은 반사되는 빛의 파장으로 인지된다. 예를들어, 청록색의 나뭇잎은 청록색에 해당되는 570~500nm 파장이 반사되어 인간이 인지하는 것
- 무채색은 물체로부터 여러 가지 파장이 고르게 반사될 때 지각된다. 즉,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른 반사율을 나타내는 경우에 무채색으로 보이는 것이다.

4. 색의 분류

- 무채색: 색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채도도 없으며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는 명도만으로 구별되며, 물체의 표면에 비친 빛의 파장 중에서 여러 파장에 걸쳐 균일하게 반사될 때 무채색이 나타난다. 무채색의 밝기는 빛의 반사율에 따라 달라진다.
- 반사율이 85% ↑이면 하양, 3~85%미만이면 회색, 3% ↓면 검정이다.
- 유채색: 무채색을 제외한 모든 물체의 색으로 빨강,노랑,파랑같은 색상의 감각을 띄며 채도를 갖고 있는 색을 유채색
- 물체의 표면에 비친 빛의 파장 중에서 특정 파장의 흡수가 선택적으로 일어나고 그 결과 반사되는 파장의 분포가 불균일할 때, 색상이 나타난다.
- 각 파장별 특성으로 나타나는 유채색은 색상,명도,채도 세가지 속성을 갖게 된다.

5. 색의 3속성

- 색이 색채로서 느껴지게 하는 세가지 자극 요소를 색의 3요소
- 그 세가지 자극 요소에 의해 일어나는 색채의 지각적 성질을 '색채의 3속성'
- 색의 3속성은 '색상,명도,채도'이며 이들은 색의 3요소인 '주파장,시감반사율,순도'에 대응된다.

①색상: 어떤 색과 유사하다는 것에 따른 시각 인식 속성이며, 빨강,노랑,초록,파랑과 가까운 쌍으로 구분하는 폐쇄적 형태를 취한다. 인간은 약 200가지의 색상을 구별할 수 있다.

②명도: 색채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나타낸 색의 속성. 인간의 눈은 명도에 가장 민감하며,약 500단계 정도를 구별할 수 있다.

③채도: 색의 맑고 탁한 정도 혹은 순수한 정도를 나타내며, 인간은 약 20단계 정도의 채도를 구별할 수 있다.

6. 보색/물리보색/심리보색

① 보색: 서로 혼합했을 때 무채색이 되는 두 색을 서로 보색관계에 있는 색이라고 부른다. 반대색x, 서로 도와주는 색o
색료 혼합시 색료의 삼원색 섞으면 or 보색 관계에 있는 두색 섞으면 검정, 빛의 삼원색 모두 혼합시 흰색(흰빛)이 나옴
현재 먼셀의 20색상환이 가장 널리 쓰이며, 인간이 더 중요시 하는 보색은 심리보색이다.

② 물리보색: 두 색을 혼합하여 무채색이 되는 색의 관계

*빛의 삼원색(R,G,B)

*색료의 삼원색(C,M,Y)

③ 심리보색: 눈에 자극을 준 다음 남는 잔상색.

노랑-파랑 / 빨강-초록은 잔상색으로 서로 심리 보색 관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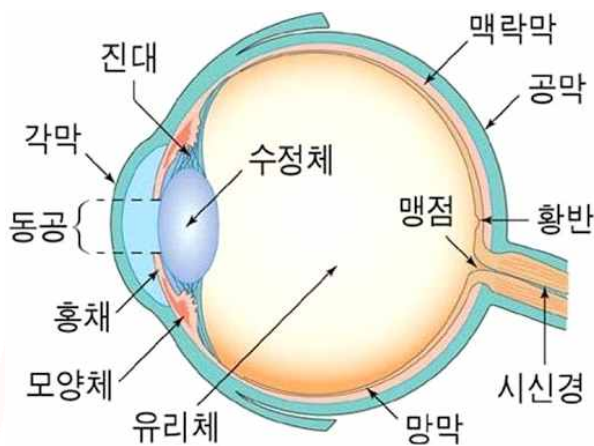
(뇌가 심리적 안정을 찾기 위해 만들어 준다)

퍼스널컬러리스트 제4강. 색이론2

1. 눈의구조

: 빛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눈은 뇌의 일부분이라고 하여 시각중추라고 하며,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망막에 투사시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킨 다음 뇌로 전달하여 정보를 인식하게 된다. 빛의 자극으로부터 인간의 광수용기에 의한 지각 과정은 다음과 같다.

빛 ▶ 각막 ▶ 안구앞방 ▶ 동공 ▶ 홍채 ▶ 수정체 ▶ 망막 ▶ 색소층 ▶ 시세포 ▶ 시신경 ▶ 뇌



2. 시세포의 종류와 망막의 기능

①시세포란? 빛으로 되어 있는 망막 위에 맺힌 상을 뇌에 전달하기에 적합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추상체/간상체가 있다.

②해상도란? 일정한 단위 안에서 얼마 만큼의 이미지를 잘 표현하는가를 말하는데 주로 색상,명도,채도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민감도'라는 것은 빛의 스펙트럼에서 어떤 광수용기가 어떤 파장에 더 민감한가를 나타내는 말로 따라서 해상도는 추상체가 높고 빛의 민감도는 아주 극소량의 빛에서도 작용하는 간상체가 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낸다.



간상체의 역할

③ 간상체: 망막에 있는 가늘고 긴 막대 모양의 세포로, 0.1 Lux 이하의 어두운 빛을 감지하는 세포(=막대세포) 이 세포 속에는 로돕신이라는 시각 색소가 있어 야간에 어두운 곳에서 작용하여 명암을 판단하는데 관여한다.



④ 추상체: 망막의 중심부에 밀집, 통통한 모양을 하고 있는 세포, 0,1Lux 이상의 밝은 빛을 감지하는 세포로서 생김새가 원뿔 형태라 원뿔 세포 혹은 원추세포라 불린다. 약 600만개 정도가 밀집해 있으며 추상체는 빛의 파장에 따라 L(장파장),

M(중파장), S(단파장)으로 나뉜다.

⑤ 시감도: 각 파장의 단색광에 의한 밝기의 감각. 주간 명소시(=낮)에 최대의 시감도를 보이는 파장의 범위는 555nm의 연두색, 야간 암소시 최대 시감도를 나타내는 색의 파장은 507nm의 초록색이다.

3. 푸르킨에 현상

푸르킨에 현상이란? 낮에는 빨간 꽃이 잘 보이다가 밤이 되면 파란 꽃이 더 잘 보이는 이유는 광수용기의 민감도의 변화에 의해 다른 결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555nm의 빛에 민감한 추상체가 암소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507nm의 빛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간상체로 시각기제가 이동하는 것이다. 추상체는 광량이 풍부한 곳에서 활동하며 주로 장파장에 민감하다. 간상체는 암소시에 주로 활동하고 단파장의 빛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따라서 야간 작업을 할 때에는 파랑이나 청록색의 색이 더 잘 보이게 된다.

4. 색의 성질

- ① 색의 항상성: 외부의 물질적 조건이 바뀌어도, 물체의 색을 동일하게 지각하는 현상(조명여건이 바뀌어도)
- ② 색의 연색성: 조명에 의하여 물체의 색을 결정하는 광원의 성질 즉, 조명에 따라 색이 다르게 보이는 현상

5. 색채지각설

영-헬름홀츠의 삼원색설(trichromatic theory) : 눈의 망막 조직에는 빨강,초록,파랑의 색각세포가 있고 색광을 감지하는 분광 감도 시신경 섬유가 있어 이 세포들의 혼합이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됨으로써 색 지각을 할 수 있다는 가설

영국의 영(Young)과 독일의 헬름홀츠(Helmholtz)가 주장한 가설로 즉, 세가지 색의 조합으로 모든 색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망막에 있는 세가지(R,G,B)

색각세포와 세 가지 종류의 신경선의 흥분과 혼합에 의해 다양한 색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헤링의 사원색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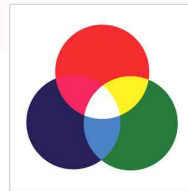
: 괴테의 4원색설을 기초로 하였으며, 색의 기본감각으로 빨강-초록 물질, 노랑-파랑 물질, 검정-하양 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망막에 빛이 들어올 때 분해와 합성이라고 하는 반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그 반응이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색지각설. 보색 잔상 효과와 동시 대비 이론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 혼색의 종류

- ① 원색: 모든 색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색. 즉, 그들 색에 의해서 모든 색을 '색맞춤' 해낼 수 있는 색이다
- ② 기본색: 복잡한 색의 체계를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한 최소한의 색
- ③ 혼색: 두 가지 이상의 색료 또는 색광의 혼합으로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가법혼색, 감법혼색, 중간혼색 세가지로 구분한다
 - 1) 가법혼색: 빛의 색광의 삼원색인 빨강,파랑,초록의 혼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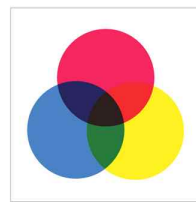
(=가산혼합,색광혼색,명도가 증가)

파랑 + 초록 = 시안
 초록 + 빨강 = 노랑
 파랑 + 빨강 = 마젠타
 파랑 + 초록 + 빨강 = 하양



- 2) 감법혼색: 색료물감,안료,염료,페인트 등의 삼원색인 마젠타,노랑,시안의 혼합을 말한다(=색료혼합, 명도감소)

마젠타+ 노랑 = 빨강
 노랑 + 시안 = 초록
 시안 + 마젠타= 파랑
 마젠타+ 노랑 + 시안 = 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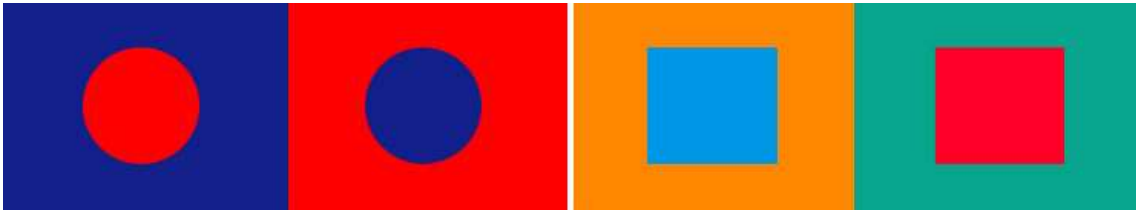


- 3) 중간혼색: 눈의 망막에서 일어나는 착시적 혼합으로, 회전혼합과 병치혼합이 있으며 중간혼색의 결과는 혼합하는 색들의 평균적인 밝기와 색상 강도를 갖게 된다.

7. 색의 대비

- ① 동시대비: 두 색을 인접시켰을 때 나타나는 현상. 대비가 강한 두 색을

인접시킨 후 시점을 한곳에 집중시키려는 색채의 지각 과정에서 일어남,
동시대비 효과는 순간적, 계속해서 한 곳을 보게 되면 눈의 피로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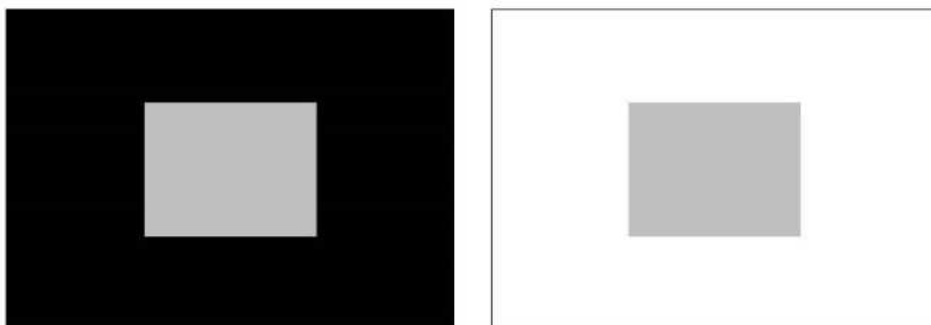


② 계시대비: 먼저 본 색의 영향으로 다음에 본 색이 다르게 보이는 것
잔상과 구별하기가 힘들며,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는 대비

③ 색상대비: 색상이 다른 두 색을 동시에 인접시켜 놓았을 때, 색상차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 색상 대비는 1차색끼리 잘 일어나며 2차,3차로 갈수록 그 대비
효과는 적어진다.



④ 명도대비: 명도가 다른 두 개의 색을 인접하여 대비시켰을 때, 서로 간의
영향으로 명도가 높은 색은 더욱 밝게, 명도가 낮은 색은 더욱 어둡게 보이는
현상. 명도의 차이가 클수록 무채색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⑤ 채도대비: 채도가 다른 두 색을 서로 대비시켰을 때 서로의 영향으로 다른

채도감을 보이는 현상. 같은 색을 저채도위에 놓으면 채도가 더 높게 보이고, 고채도 위에 놓으면 채도가 더 낮게 보인다. 유채색과 무채색의 대비에서 가장 뚜렷하게 일어난다.

⑥ 연변대비: 인접한 두 색을 동시에 바라볼 때, 대비효과가 더욱 강하게 강조되어 보이는 현상. 서로 다른 두 색이 인접해 있을 때 인접 부분에서 색상,명도,채도 대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

⑦ 면적대비: 동일한 색임에도 불구하고 면적이 커지면 명도와 채도가 증가하고, 반대로 면적이 작아지면 명도와 채도가 낮아지는 현상



퍼스널컬러리스트 제5강. 색이론3

1. 색의동화

: 인접한 색들끼리 서로의 영향을 받아 인접한 색에 가깝게 보이는 현상
서로 비슷한 색이 만나 협상하여 비슷한 지점 찾아준다.

ex) 굴 망(주황)

2. 색의잔상

: 자극을 받은 후 남게되는 시각상의 흥분상태. 잔상의 출현은 자극의 강도가 강할수록, 자극 시간이 길수록 오랫동안 지속된다.

① 음의잔상 : (=부의잔상) 주어진 색자극과 반대의 색과 밝기가 느껴지는 것
쉽게 말해, 보색으로 보이는 것

ex) 수술실의 수술복

② 양의잔상 : (=정의 잔상) 망막에 주어진 색의 자극이 흥분된 상태가 그대로 지속됨으로써 그 자극이 없어졌을 때도 원래의 자극과 같은 자극으로 남아 있고, 계속 연결되는 것(원래의 자극과 질적으로 같은 것)

다음 자극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으며, 음의 잔상보다 더 오랫동안 자극이 지속된다.

ex) 야밤의 쥐불놀이

3. 색의 감정 효과

① 온도감 : 색의 온도감은 빨강-주황-노랑-연두-초록-파랑-하양의 순으로 파장이 긴 쪽이 따뜻하게, 난색 계열로 느껴지며, 파장이 짧을수록 차갑게, 한색계열로 느껴진다. 초록,보라등의 색은 때로는 차갑게도 때로는 따뜻하게도 느껴지는 중성색이며, 이러한 온도감은 색의 3속성 가운데 색상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

② 중량감 : 중량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3속성 중에서도 특히 명도의 영향이 가장 크다.

고명도의 색은 가벼워 보이고 저명도의 색은 무거워 보인다.

무채색의 경우에도 흰색은 가벼워 보이는 반면 검은색은 무거워 보인다.

③ 경연감 : 부드럽고 딱딱한 느낌, 경연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채도,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한 느낌을 주고, 채도가 낮은 색은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색상에서 난색은 부드럽고 한색은 딱딱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명도가 높은 색은 부드럽게, 명도가 낮은 색은 딱딱하게 느끼게 된다.

④ 진출색과 후퇴색 : 앞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색을 진출색, 뒤로

물러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색을 후퇴색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왼쪽의 색들이) 더 진출하는 느낌을 준다.

따뜻한 색 > 차가운 색

밝은색 > 어두운 색

고채도 > 저채도

유채색 > 무채색

⑤ 팽창색 : 어떤 색이 실제 면적보다 크게 느껴지는 색

수축색 : 실제 면적보다 작게 느껴지는 색 , 따뜻한 난색 계열이나 명도가 높은 색은 외부로 확산하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팽창색이 되고, 한색계열이나 명도가 낮은 색은 내부로 수축하려는 특성이 있어 수축색이 된다.

⑥ 주목성과 시인성 : 주목성이란 일정 거리 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색. 단일 색상에 대한 자극성을 말하며, 보색 관계에 있는 색채에서 강한 효과가 나타난다.

주목성이 강한 색의 순서는 주황색-빨간색-노란색-연두색-파란색-녹색-검은색-보라색-회색이다.

시인성이란 물체색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를 나타내는 정도.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이는 색을 말하며, 색의 3속성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배경과 명도 차이에 가장 민감하게 나타난다.

멀리서 잘 보이는 경우 명시도가 높다고 한다. 교통기관, 도로경계선, 유아용 비옷등에 주로 활용된다.

⑦ 흥분색과 침정색 : 색감에 따른 색의 특성을 구분해보면, 흥분을 일으키는 색을 흥분색, 적극적 색과

침정 작용을 일으키는 침정색, 소극적 색으로 나눌 수 있다. ex) 우울증 환자의 활동성을 높여주고 흥분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밝은 난색 계열의 색상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다.

⑧ 시간성과 속도감 : 시간성이란 같은 시간을 지내도 장파장 계열로 칠해진 색 공간에서는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고 느끼고, 단파장 계열의 색 공간에서는 시간성을 짧게 지각하는 특성이 있다.

속도감에선 단파장은 느리게 움직이는 것으로, 장파장은 빠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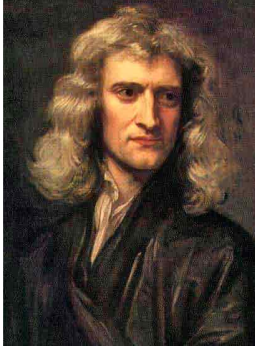
로 느껴진다.

⑨ 강약감 : 채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채도가 높은 색은 강하고 채도가 낮은 색은 약하게 느껴짐. 명도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데 고명도의 하양은 약해보이고 저명도의 검정은 강해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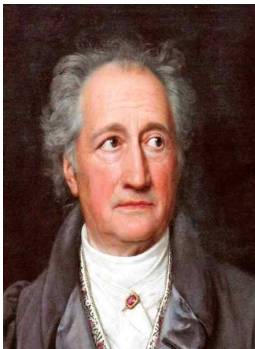


퍼스널컬러리스트 제6강. 색이론4

1. 뉴턴/괴테/요하네스 이텐



뉴턴(1642~1727) : ‘분광실험’을 통해 색을 물리적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색상을 폐쇄적 시스템이라 생각하였는데, 이는 일정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체 순환구조를 말하며, 빨강/주황/노랑/초록/파랑/남색(파란보라)/보라로 나타낸다. 뉴턴의 색상환은 7가지 기본색에 음악의 7음계와 연관시켜 음악과 색채를 연결한 최초 시스템이다.



괴테(1749~1832) : 괴테는 색채현상을 밝음과 어둠의 만남,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괴테의 색채론은 인간의 감각 중 특히 눈을 매개로 한 자연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색채란 빛과 눈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생겨난 것으로 눈 속에 일종의 빛이 있어서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미세한 자극이 주어지면 색채가 촉발된다는 생리적 특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색채는 물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심리적, 생리적인 인간의 내면성을 포함한다 생각하였고 색채는 과학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요하네스 이텐(1888~1967) : “색은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이다”

--> 색채조화론

4계절에 대한 습작을 통한 학생 개개인 주관적 색조 주장 (화제가 바뀌어도 자신만의 채색 표현은 변하지 않는다.)

2. 표색계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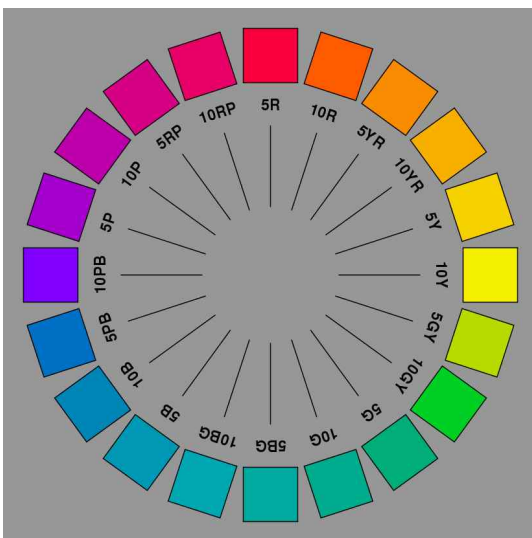
① 현색계(=색표계): 색을 표현하는 색체계, 컬러칩이 존재한다. 물체색을 색 지각의 3속성에 의해 정량적으로 분류, 표시하는 방법. NCS, 먼셀, PCCS, IRI 등이 속한다.

② 혼색계(=표색계): 색의 위치를 표시하는 것. Digital Color 빛을 기준으로 한 색의 표시방법으로, 물체 표면의 빛 반사율을 측정기로 측색해서 색의 특징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CIE가 여기에 속한다 // 오스트발트는 현색계, 혼색계 둘 다 속함

3. 색체계

① 먼셀



먼셀(1858~1918)은 미국의 화가이며 색채 연구가이다.

1905년에 창안된 표색계 빨강R, 노랑Y, 초록G, 파랑B, 보라P, 다섯가지 색이 기본색. 감법혼색의 원리가 적용되었다. 우리나라 및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색체계

먼셀 기호 표기법 :

H(색상) V(명도)/C(채도) --> H V/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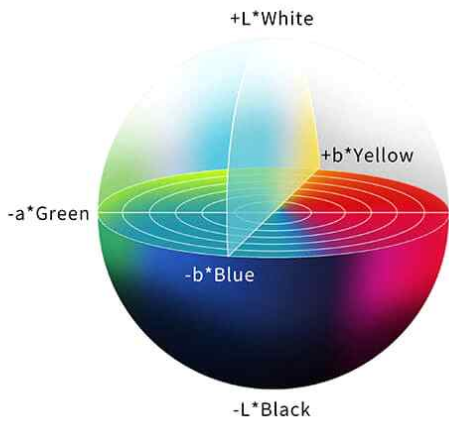
ex) 색상이 빨강의 중심이고 명도가 4이며 채도가 8인 경우 5R 4/8

먼셀의 색채 조화론

: N5(중간회색)가 모든 불균형의 색들을 어울리게 하는 명도, 각 색들의 평균 명도가 이 중간 명도로 어울릴 때 균형 있는 조화라 생각.

ex) $N2+N8+N5=15/3=5$ (조화롭다)

② CIE L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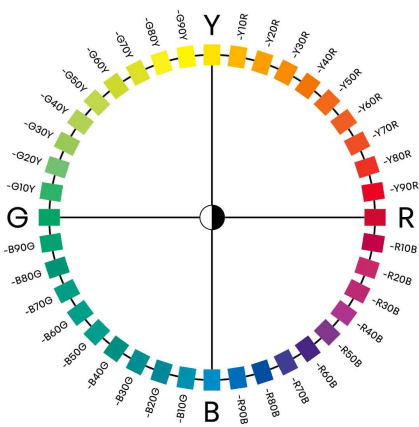


국제 조정 위원회에서 만든 색 오차와 근소한 색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변환된 색 공간.

노랑-파랑 / 빨강-초록이라는 헤링의 반대색설을 기초로 하여 인간의 감성에 접근하기 위해 연구된 결과로, 색의 오차와 색의 차를 표현할 수 있다.

주로 색소 산업 및 페인트, 종이, 플라스틱 식물 등 물체색과 관련된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다.

③ NCS



‘Natural Color System’의 약자로, 인간이 눈으로 지각할 때 느끼는 색에 대한 감정의 자연적 시스템을 말한다.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색이 아닌 보편적인 자연색을 기본으로 인간이 어떻게 색채를 보는가에 기초하여 심리 보색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색체계

여섯 가지 심리 원색인 하양(W), 검정(S), 노랑(Y), 빨강(R), 파랑(B), 초록(G)을

기본색으로 하여 각각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W(\text{흑색량}) + S(\text{순색량}) + C(\text{색도}) = 100$ 이라는 개념의 세 가지 속성중에서 흑색량과 순색량의 뉘앙스만 표기한다.

④ 오스트발트



노벨 화학 상 수상자인 독일의 오스트발트(1843~1932)가 1916년 창안한 표색계,
 색각의 물리+심리 원색을 바탕으로 하는 색채 표시 방법으로 헤링의 생리적 대응색설 4원색 이론을 기본으로 한다.
 이상적인 세가지 요소를 가정하여 물체색을 체계화하였다.
 노랑,파랑,초록,빨강을 기본으로 하여 24색상

구성.

모든 색을 순색량C + 백색량W + 흑색량B = 100을 기본으로 한다.

[헤링의 4원색설/색채지각설]

: (=대응색설) 괴테의 4원색설을 기초로 하였다. 1916년에 발표된 오스트발트 표색계의 바탕이 된 색지각설이다. 세 종류의 광화학 물질인 빨강-초록 물질, 노랑-파랑 물질, 검정-하양 물질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망막에 빛이 들어올 때 분해와 합성이라고 하는 반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 그 반응이 비율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보이게 된다는 색 지각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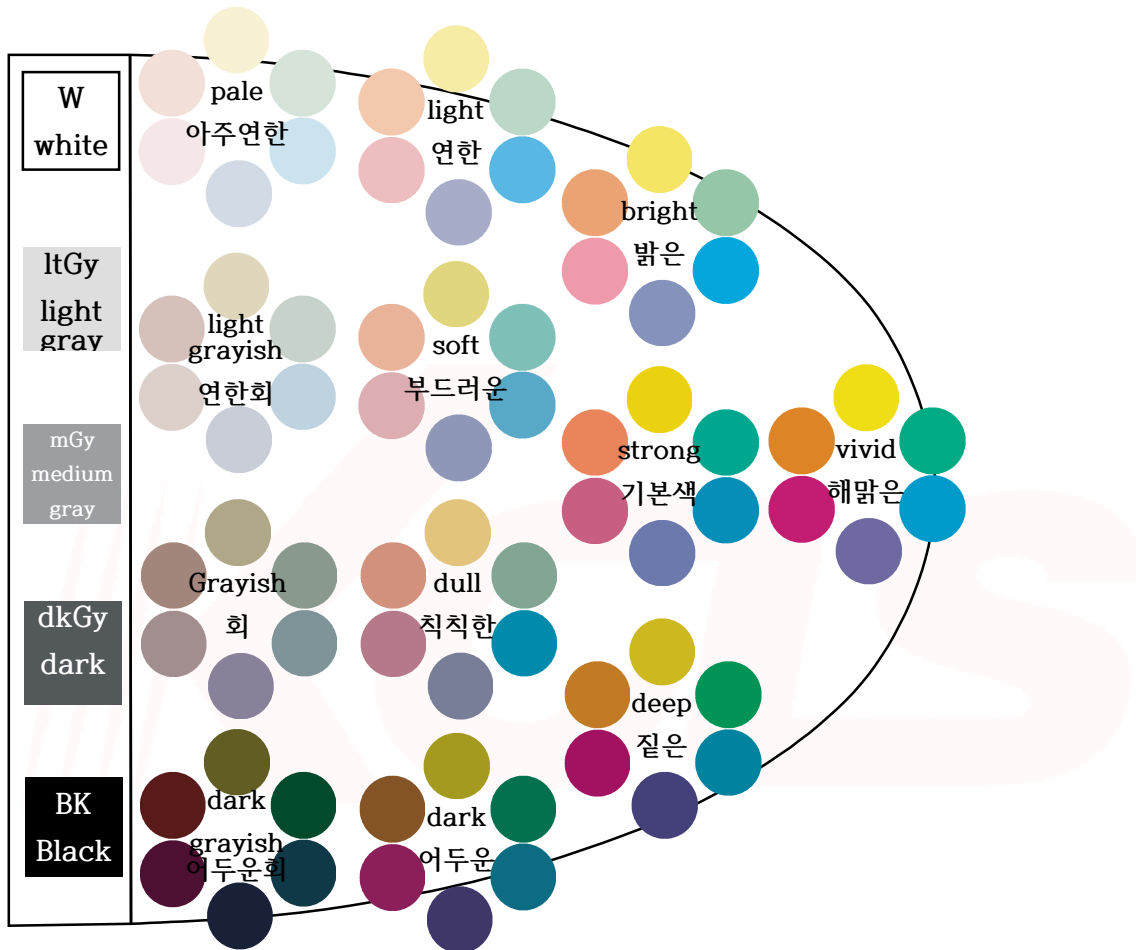
⑤ PCCS



일본 색채연구소가 1964년에 발표한 색채 조화 교육용 배색 체계
 ‘Practical Color Coordinate System’의 줄임말
 색의 표시보다는 체계적인 색채 조화를 위한 색 공간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명도는 먼셀, 색상은 오스트발트를 기반으로 정립된 색체계

R,Y,G,B를 기본 색상으로 출발한다

주로 색채 교육 및 배색 계획과 마케팅 자료로 활용됨.
이 체계는 톤의 개념이 도입되어 톤과 색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배색 조화를 얻기 쉬울 뿐만 아니라 계통 색명과도 대응시킬 수 있어 일본에서는 디자인계와 교육계에 널리 보급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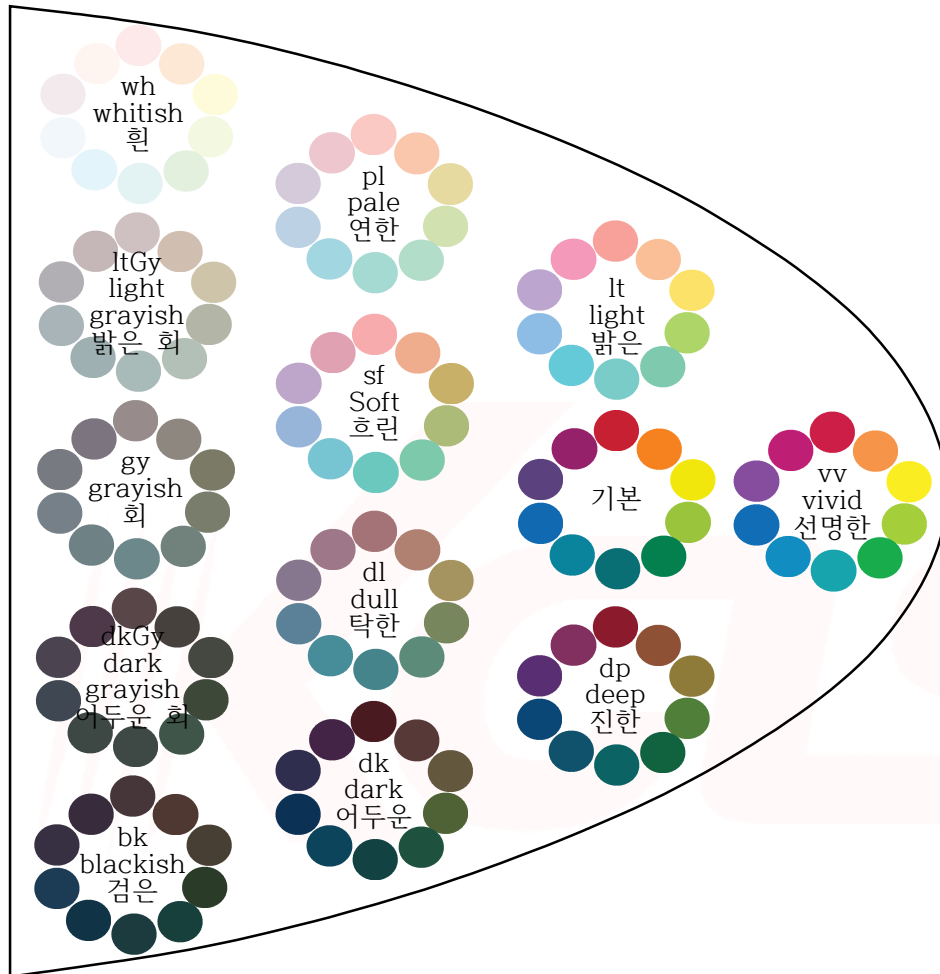


[KS톤표] : 한국산업규격에 의해 정의된 한국에서 사용되는 색체계입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도 패션, 디자인 업계에서 통용되는 퍼스널컬러 진단

색체계.

bk톤이 추가되었으며, 총 155색으로 규정되어 있다.

면셀색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R,Y,G,B,P 5색상을 기본 색상으로 출발한다.



⑥ 팬톤시스템

: 팬톤(PANTONE LLC.)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정확한 컬러 선정과 색채의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10000여가지 이상의 색을 시스템으로 권위 있는 기업이다. 미국 뉴저지 주 칼 스타트(Carlstadt)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팬톤은 4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픽 디자인, 인쇄, 출판, 섬유 및 플라스틱 산업을 위한 컬러 커뮤니케이션 및 컬러 기술 분야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 팬톤 컬러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이다.



퍼스널컬러리스트 제7강. 색명체계 & 사계절 유형별 특징

1. 색명체계

색명이란, 색을 이름으로 표시하는 표색의 일종. 색을 표시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전달을 목표로 한다.

색명은 기본적 색명부터 국가,인종,지역등에 따라 붙여지거나 형용사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크게 기본색명/관용색명/계통색명으로 나뉜다.

① 기본색명 : 한국산업규격(KS A 0011)에 제시된 기본적인 색의 구별을 나타내기 위한 기본색의 이름이다. 우리나라는 12개의 유채색과 3개의 무채색으로 기본색명을 규정. 유채색의 기본색명은 빨강/주황/노랑/연두/초록/청록/파랑/남색/보라/자주/분홍/갈색이며 무채색의 기본색명은 하양/회색/검정으로 표현한다.

② 관용색명(Customary Color Names) : 습관상 사용되는 색에 대한 고유색명으로, 동식물, 광물, 자연대상물, 지명, 인명 등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다. 전달이 쉽고 직관적이나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른 색감과 이름을 지닌다는 특징이 있어 부정확하다는 보완점이 있다.

1) 동물의 이름에서 따온 색명 : 비둘기색, 쥐색, 연어살색, 낙타색, 오징어 먹물 등

2) 식물의 이름에서 따온 색명 : 복숭아색, 올리브색, 밤색, 오렌지색, 장미색, 레몬색, 라벤더색 등

3) 광물이나 원료의 이름에서 따온 색명 : 고동색, 금색, 은색, 황금색, 코발트블루, 에메랄드그린, 황토색 등

4) 지명 또는 인명에서 따온 색명 : 프리시안 블루, 하바나브라운, 마젠타보르도 등

③ 계통색명(Systematic Color Names) : 기본색명에 색의 3속성(색상, 명도, 채도)이 드러나도록 수식어를 붙여 표현하는 색 이름을 말한다. 색이 감성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도록 형용사나 수식어를 덧붙여서 진한 빨강, 탁한 파랑, 어두운 초록, 밝은 보라, 빨강을 띤 주황, 노랑을 띤 초록, 파랑을 띤 보라 등으로 부르는 것이다.

계통색명은 기본 색명보다는 정확하지 않지만, 관용색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감성적 전달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KS색명법]

구분	기본색 이름	대응영어	약호
유채색 12가지	빨강	Red	R
	주황	Yellow Red	YR
	노랑	Yellow	Y
	연두	Green Yellow	GY
	초록	Green	G
	청록	Blue Green	BG
	파랑	Blue	B
	남색	Purple Blue	PB
	보라	Purple	P
	자주	Red Purple	RP
	분홍	Pink	Pk
	갈색	Brown	Br
무채색 3가지	하양	White	Wh
	회색	Neutral Gray	Gy
	검정	Black	Bk

2. 사계절 유형별 특징

① 봄 율 : 고명도&고채도/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색감/노란기있는 밝은색이 주를 이루며 화사하다



***봄 율 피부 특징**



- 메이크업 전 후(혹은 좌우) 기본적으로 밝기가 있다.
- 기본적으로 밝기가 있다
- 붉은기 보단 노란 기 수치가 높음
(노란기-붉은기=6이상이면 율톤가능성 ↑)
- 피부가 노랗고 검게 타는 편이다
- 대표적인 패션 이미지
: Romantic, Casual, Sporty
- 톤 이미지
:pale,light,vivid

*봄 율 피부에 가까운 연예인 ex) 유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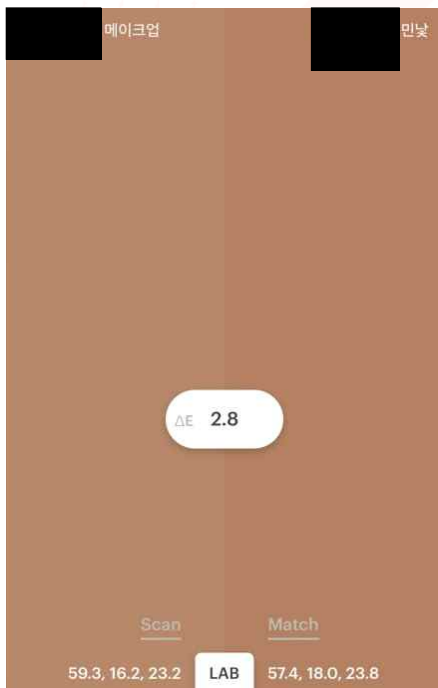
*봄 율에 어울리는 보석: 크림색의 진주, 골드톤의 보석, 로즈골드



② 가을웜: 저명도&저채도/+gray(탁색),+black(암청색)/노란기있는 어두운색이 주를 이루며 차분하다



*가을웜 피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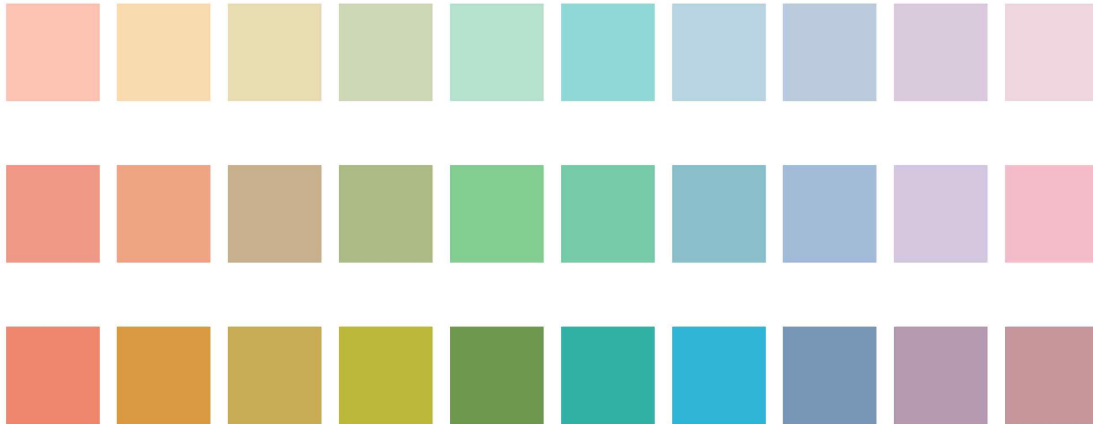
- 노란 기 & 검은 기가 둘 다 높음
- 붉은 기와 노란 기의 차이가 큰 편
- 햇빛에 잘 타는 피부라 기미, 잡티 있다
- 봄웜보다 상대적으로 명도가 어두운 편
- 대표적인패션 이미지
: Natural, Ethnic, Gorgeous
- 톤 이미지
:soft,dull,deep

*가을웜 피부에 가까운 연예인 ex) 이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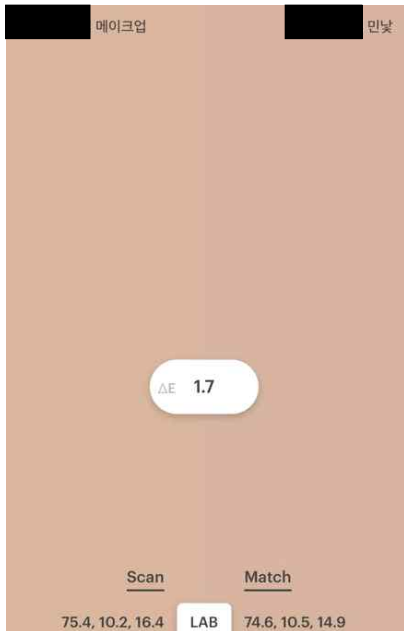
*가을웍에 어울리는 보석: 골드 톤의 따뜻한 느낌, 크림색, 브라운계진주, 호박등



③ 여름쿨 : 고명도&저채도/밝고 부드러움, +white(명청색) /푸른기있는 밝은 색이 주를 이루며 산뜻하다.



*여름쿨 피부 특징



- 육안으로 봐도 하얀 피부
- 붉은 기와 노란 기의 차이가 거의 없음
(노란기-붉은기=6이하 이면 쿨톤가능성 ↑)
- 피부가 잘 안 타고 익었다가 돌아온다
- 노란기-붉은기=마이너스 나오는 경우 ○
- 대표적인 패션 이미지
: Elegance, Chic, Feminine
- 톤 이미지
: whitish,pale,soft

*여름쿨 피부에 가까운 연예인 ex) 이효리

*여름쿨에 어울리는 보석: 화이트골드, 은과 같은 실버톤, 핑크+흰색의 진주, 터키석, 아쿠아마린



④ 겨울쿨 : 저명도&저채도, 고명도&고채도/+black(암청색) 어두우면서도 선명한 색이 공존/푸른기있는 색이 주를 이루며 선명하고 강하다



***겨울쿨 피부 특징**



- 밝기가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다
- 여름보단 노란 기가 살짝 있음
- 피부가 노랑고 검게 / 붉게 타는 편
- 대표적인패션 이미지
: Modern, Mannish, Dandy
- 톤 이미지
: vivid, deep, dark
- ★사계절 유형 중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겨울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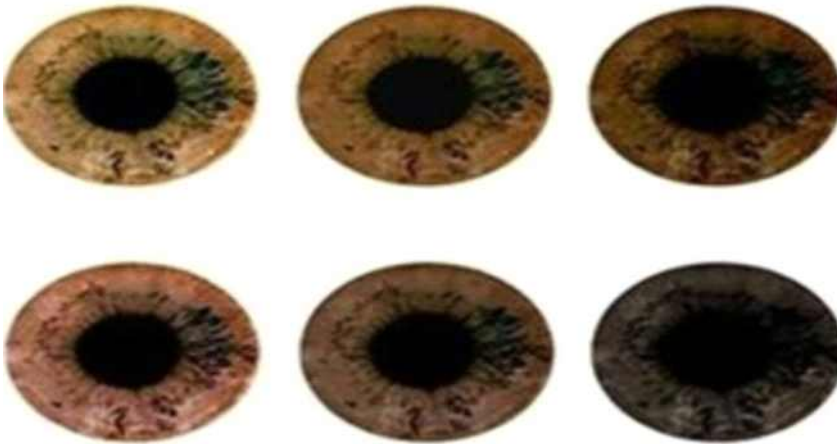
*겨울쿨 피부에 가까운 연예인 ex) 블랙핑크 지수

*겨울쿨에 어울리는 보석: 화이트골드,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자수정



[웜/쿨 눈동자 컬러]

[↓ warm 눈동자 : 갈색~녹색빛이 좀 더 감돈다]



[↑ cool 눈동자 : 갈색~붉은빛이나 색감이 적은 갈색/블랙/그레이]

퍼스널컬러리스트 제8강. 청탁구분

1. 톤/순색

① 톤이란? 색의 3속성 중, 명도+채도가 합쳐진 것, '색조'라고도 말하며, 색상과는 관계하지 않는다. 표기는 영어 소문자로 한다. PCCS는 12개 톤, KS톤 표는 13개 톤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순색이란? 순수한 순(純) / 색 색(色)

다른 색(흰색, 회색, 검정)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색

동일 색상 중에서도 채도가 가장 높은 색으로 먼셀 색상환에서 색상 기호 5는 순색입니다.



2. 명청/암청/청탁/유채색 명도

① 청탁이란? 맑을 청(靑), 흐릴 탁(濁)의 의미로 맑고 흐린 정도를 나타낸다.

청색 : vivid를 기준으로 순색에 흰색과 검정색을 섞은 색(vivid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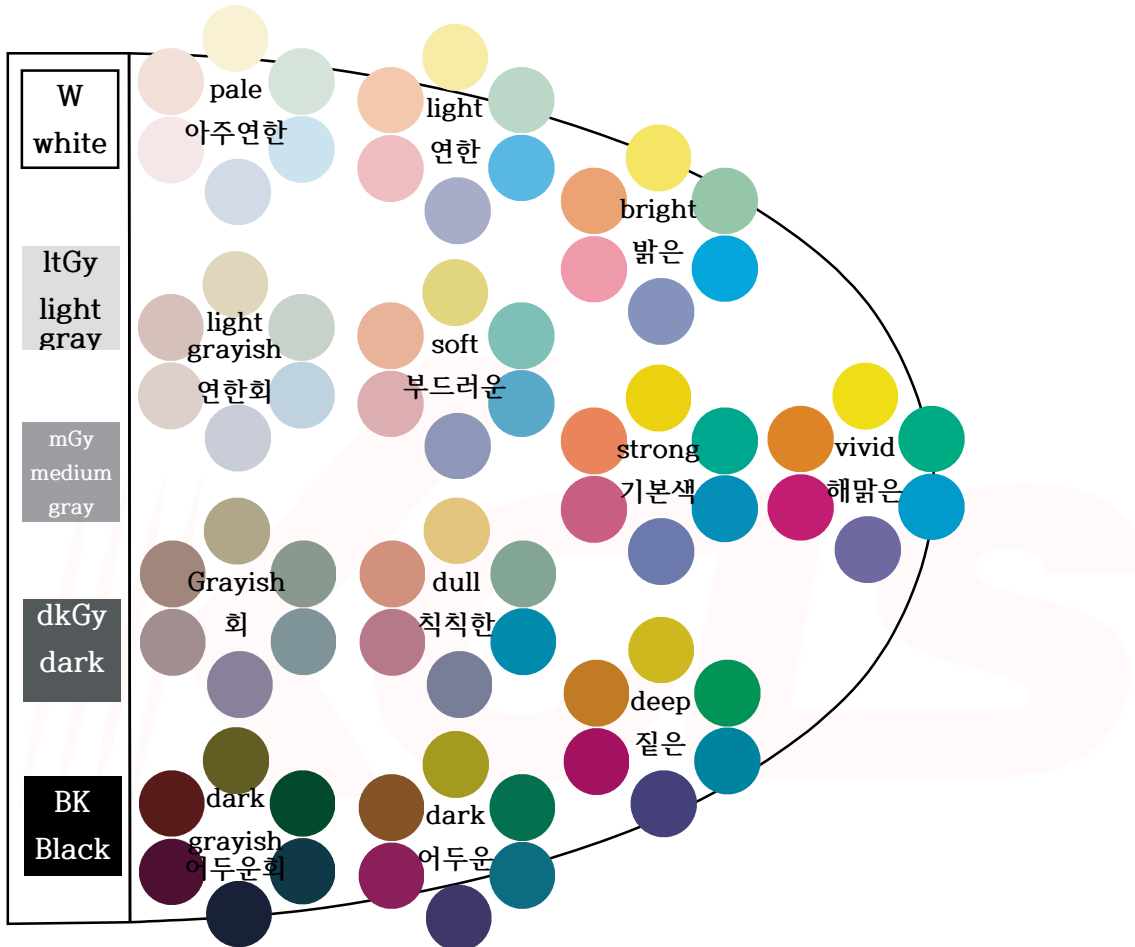
탁색 : vivid를 기준으로 순색에 회색을 섞은 색

② 명청색, 암청색, 탁색?

명청색이란, 순색에 흰색을 섞은 명도가 높은 색이다.

암청색이란, 순색에 검정색을 섞은 명도가 아주 낮은 어두운 색을 말한다.

탁색은, 순색에 회색을 섞은 색을 말한다.



명청색: vivid, bright, light, pale

암청색: deep, dark, darkgrayish

탁색: lightgrayish, grayish, dull, soft, strong

[청색이 잘 어울릴 때]

- 윤곽이 확실해 보인다
- 윤기가 난다
- 피부에도 탄력이 생긴다

[청색이 잘 안어울릴 때]

- 얼굴의 잡티, 주름이 도드라져 보인다
- 환해보이기 보다는 창백해보인다.
- 피부결이 딱딱해 보인다

[탁색이 잘 어울릴 때]

- 피부가 균일하고 매끄러워 보인다
- 잡티가 없어 보인다
-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이 많이 든다

[탁색이 잘 안어울릴 때]

- 얼굴 이목구비가 흐릿해 보이고, 피부가 늘어져 보인다
- 노란기나 붉은기가 유독 도드라져 보인다

③ 명도진단(무채색 구분)

- 대부분 흰색을 입으면 밝아지고, 검은색을 입으면 어두워진다
- 하지만 사람마다 더 어울리는 무채색 & 덜 어울리는 무채색의 범위가 존재하므로, 진단시 무채색과 유채색 명도 진단을 둘 다 진행해야 한다.

[고명도 색이 잘 어울릴 때]

- 안색이 밝아진다
- 기미나 주름이 없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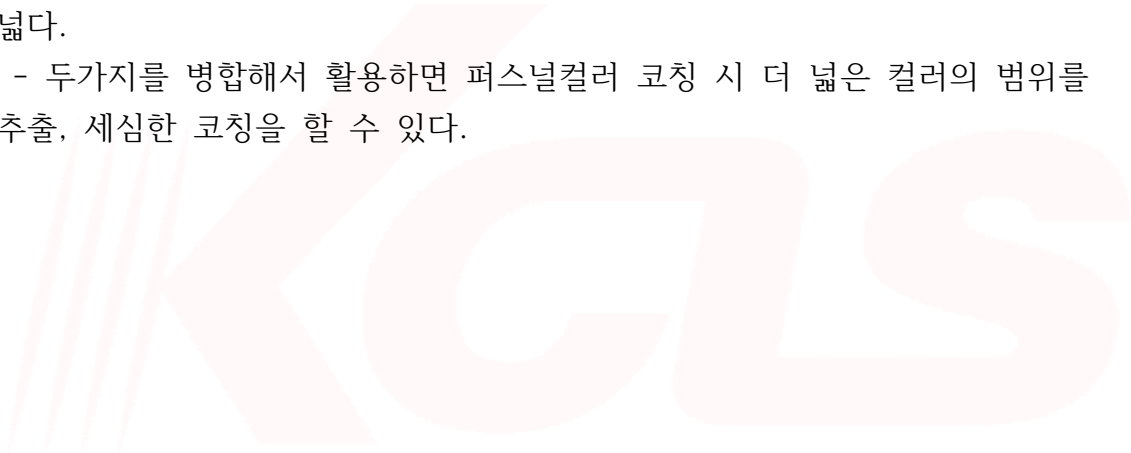
- 다크서클이 약해진다
- 형광등을 켜 듯한 느낌이 한번에 든다

[저명도 색이 잘 어울릴 때]

-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인다
- 얼굴이 작아 보인다
- 피부에 윤택이 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한번에 든다

3. PCCS/KS 둘 다 알아야 하는 이유

- 한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색은 KS톤표에 더 가까움
- 배색 및 컬러 조화에서는 PCCS가 더 강점
- PCCS에서는 밝은색의 영역이 더 많으며, KS톤표는 어두운색의 영역이 더 넓다.
- 두가지를 병합해서 활용하면 퍼스널컬러 코칭 시 더 넓은 컬러의 범위를 추출, 세심한 코칭을 할 수 있다.



퍼스널컬러리스트 제9강. PCCS 톤의 구분과 심리

1. 톤의 구분과 심리

① vivid톤



- 증명도/고채도
- 모든 톤의 가장 기준이 되는 선명한 톤
- 기준색/순색
- PI를 드러내는 데 가장 효과적인 톤
- 배색이미지: 강한, 명쾌한, 인상적인, 화려한, 자극적인

② bright톤



- 고명도/고채도/명청색
- vivid에서 흰색이 좀 더 섞인 맑은 톤
- 상쾌함, 희망, 밝게 빛나는 느낌
- 스포츠 웨어 분야에서 사용이 많다
- 배색이미지: 경쾌한, 활동적인, 선명한

③ strong톤



- 증명도/고채도/회색이 섞인 탁색
- vivid에서 회색이 좀 더 섞여 선명함이 살짝 줄어든다
- vivid보다 패션 컬러로 활용이 많이 된다
- 스포츠웨어, 레저용품 등에 많이 사용된다.
- 배색이미지: 강한, 주목성있는, 화려한, 다이내믹한

④ deep톤



- 저명도/고채도/암청색
- vivid톤에 검정을 섞어 만든 톤
- 색상이 진하면서도 강한 특징
- 가구/명품 등에서 많이 사용된다.
- 배색이미지: 진한, 깊은, 중후한, 침착한, 강한

⑤ dark톤



- 저명도/중채도/암청색
- deep톤보다 검정이 더 많이 섞인 톤
- 남성 정장에 많이 사용된다
- 다양한 배색에 활용된다
- 배색이미지: 견고한, 어두운, 무거운, 남성적인, 딱딱한

⑥ dull톤



- 중-저명도(컬러에 따라 살짝 다르다)/중채도/회색이 섞인 탁색
- 흐릿, 차분하고 고풍, 고상한 느낌을 연출한다.
- 패션/인테리어 이미지에도 잘 맞는다
- 트렌치코트, 카푸치노가 떠오르는 톤
- 배색이미지: 차분한, 탁한, 클래식한, 동양적인

⑦ soft톤



- 중-고명도/중채도/회색이 섞인 탁색
- vivid톤에 밝은 회색을 섞어 만든 톤
- 선명함은 줄어들었으나 중명도/중채도 느낌으로 컬러가 자연스럽다.
- 거부감이 적다. 스웨터 컬러 사용 多
- 배색이미지: 부드러운, 옅은, 약한

⑧ light톤



- 고명도/중채도/명청색
- bright톤보다 흰색이 더 많이 섞여있다.
- 배색이미지: 가벼운,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귀여운

⑨ pale톤



- 高明도/저채도/명청색
- 유채색의 톤 중에서 가장 밝은 톤
- 색이 연하다는 느낌을 많이 준다
- 파스텔 톤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 밝은 쪽에서 다양한 배색을 할 수 있는 톤
- 배색이미지: 맑은, 투명한, 가벼운, 옅은, 청순한

⑩ light grayish톤



- 중-高明도/저채도/회색이 섞인 탄색
- light+밝은 회색을 섞은 톤
- 젊은 세대가 정장으로 입을 시 세련된 이미지 연출 가능
- 패션 및 인테리어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 배색이미지: 부드러운,소박한,온화한,편안한

⑪ grayish톤



- 중-저명도/저채도/회색이 섞인 탁색
- dull톤에서 회색을 더 섞어서 만든 톤
- 젯빛의 느낌이 많다.
- 고채도의 컬러와도 배색이 잘 된다
- 남성정장, 인테리어에 사용이 많이 된다
- 배색이미지: 은은한, 정적인, 단순한, 조용한

⑫ dark grayish톤



- 저명도/저채도/암청색
- dark톤에 어두운 회색을 섞어서 만든 톤
- 무게감있으나 생동감, 화려함이 적고 소박하다
- 고급스러운 배색 연출에 효과적이다
- 배색이미지: 어두운,무거운,견고한,남성적인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0강. 퍼스널컬러-헤어

1. 헤어의 중요성

- 퍼스널컬러에서 중요한 파트인 헤어컬러
- 고객 중 70% 이상이 코칭을 받은 후 바로 염색하러 감
- 시각적인 변화에 큰 영향을 주는 헤어컬러

● 일반적인 뽀/쿨 헤어컬러

- 뽀톤: 브라운계열 / 카키계열 / 오렌지계열 / 골드 계열 등
- 쿨톤: 블랙계열 / 레드계열 / 퍼플계열 / 블루 계열 등

- 모발의 경우, 뽀/쿨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나 어떤 색의 염색이 잘 어울리는지 '범위'를 알려 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각 모발에 맞는 퍼스널한 코칭이 필요하다.

2. 모발진단 순서

① 햇빛이 많이 받는쪽(바깥쪽)과, 햇빛이 덜받는쪽(목 뒷덜미 안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헤어 명도를 도출한다.

(평균 2-3Lv이 가장 많다)

- ② 멜라닌색소의 양을 체크한다.
- ③★모발이 직모인지/반곱슬인지/곱슬인지를 살펴본다.
- ④ 탈색/블랙염색을한 경험이 있는지 파악한다.
- ⑤ 탈모/지루성 두피염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멜라닌 색소란? 멜라닌 색소는 멜라노사이트 라는 색소 형성 세포에서 형성된다. 아미노산인 티로신(주원료)에 티로시나아제 효소가 작용하여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낸다.

손가락 모양처럼 생긴 멜라노사이트의 돌기 끝에서 멜라닌 색소를 가득 갖고 있는 멜로노솨이 방출되어 모피질 전체에 퍼져 있다가 모발이 성장하면서 상부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 때, 과립 안쪽에 멜라닌 색소를 가득 저장한 멜라노솨은 멜라닌 과립의 수, 크기, 합성에 의해 모발색이결정된다.

멜라닌 양이 많은 모발 색상 순서는 **흑>갈색>적색>금발>백발**이다



<멜라닌 색소가 많은 모발> <멜라닌 색소가 적은 모발>

● 멜라닌 색소 종류

①. 유멜라닌

검정과 갈색을 나타내는 진한 색소이다.

타원형 형태이다.

탈색이 빨리 이루어지고, 파랑 - 빨강 - 노랑 순으로 색이 빠진다.

서양인보단 동양인한테 많다.

②. 페오멜라닌

붉은색과 노란색을 나타내는 옅은 색의 색소이다.

작은 구형 형태이다.

동양인보단 서양인한테 많다.

탈색으로 색상이 잘 제거한다.

3. 모발의 특징

- 대체적으로 직모인 경우 머리카락이 얇고, 술이 적은 경우가 많다.
- 반면 곱슬이 강할수록 머리카락이 굵고, 술이 많은 경우가 많다.
- 반곱슬의 경우 헤어라인앞쪽이 뜨고 곱슬인 경우가 많다.
- 이 외 최근 헤어 특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① 직모의 경우

- 모발 명도체크를 통해, 멜라닌 색소 양을 확인한다.
(어두울 수록 멜라닌 색소가 많으며, 밝을 수록 멜라닌 색소가 적은 편)
- 모발 굵기가 굵을수록 머리 손상 가능성이 줄어드는 편,
탈색모에 대해 범위를 좀 더 넓게 추천할 수 있다.
- 애쉬계열의 경우, 헤어 명도가 높고 모발이 얇은경우좀 더 잘 어울리고
유지력이 오래간다(ex. 애쉬카키, 애쉬베이지등)
- 전체염색&탈색(발레아쥬,솜브레등)을 했을 때 가장 윤기나보이는 모발

② 반곱슬의 경우

-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
- 보통 헤어라인앞쪽이 곱슬이며 모발 굵기가 얇고, 뒤로 갈 수록 좀 더 곱
어지는 편이 많다.
- 매직 시술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확인할 것
- 모발 명도 체크를 통해 멜라닌 색소 양을 확인한 후, 헤어피스나 측색기를
이용하여 어울리는 컬러는 찾는다.
- 투톤등의 염색도 잘 어울리는 편

③ 곱슬의 경우

- 곱슬의 강도와 매직시술을 주기적으로 하는지 확인한다.
 - 가급적 탈색은 권장X
- (※직모보다는 곱슬이 시술 유지력이낮은편)
- 염색을 하더라도 탈색을 하지 않고 염색을 하는것을추천
 - 탈색시 발레아쥬는 권장X, 하더라도 투톤으로 턱 위쪽의 모발은
탈색약이 닿지 않도록 한다.

<모발진단 후 내용정리>

①모발의 특징을 파악한 후, 어울리는 헤어컬러의 범위를 알려준다.

☞컬러도출/염색유무/탈색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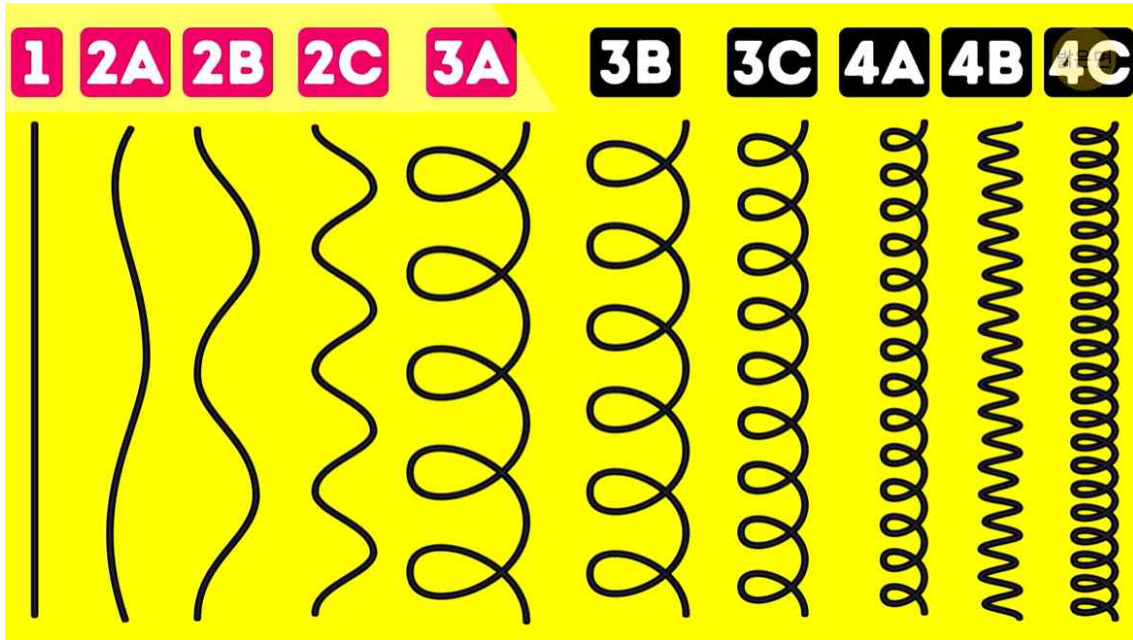
②염색이 안 어울리는 경우, 펌이나 컷트 등 스타일링으로 헤어코칭을
알려준다.

③펌과 염색을 동시에 희망하는 경우, 펌을 먼저 하고 염색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단, 매직의 경우 뿌리염색을 먼저하고 매직을 하는것을추천)

④패션컬러와 일치하는 유형인지, 차이가 있는 유형인지를 알려준다.

참고) 모발의 곱슬강도 (직모~곱슬)



참고) 한국에서 사용되는 염색약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1강. 퍼스널컬러-메이크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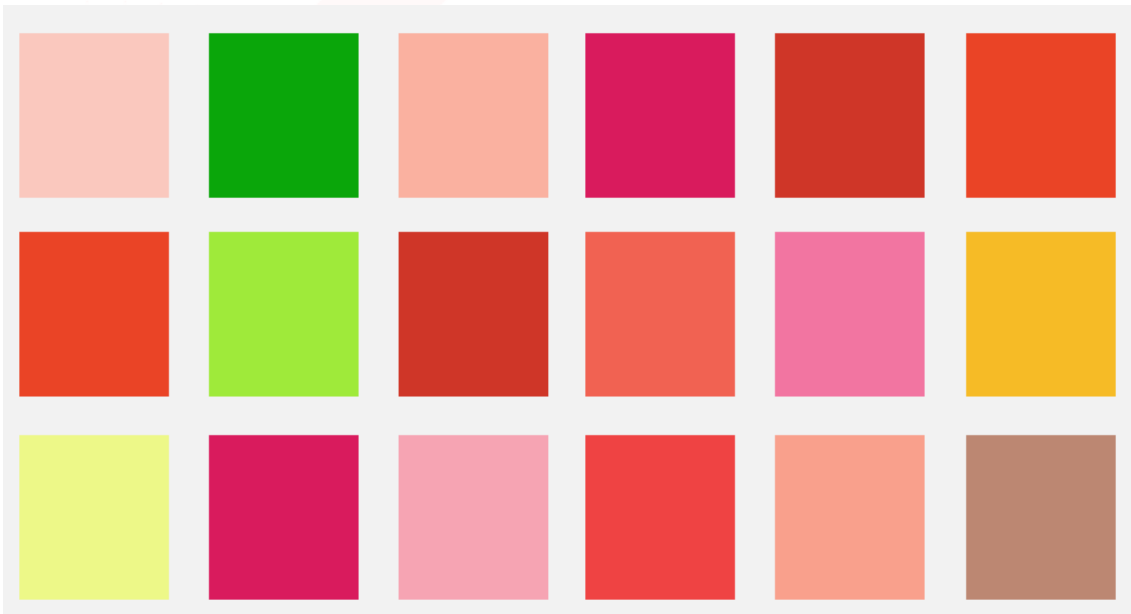
1. 일반적인 월/쿨 사계절 메이크업

[메이크업]

- 이미지(&첫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메이크업
- 메이크업은 고객의 선호도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 어울리는 색을 바르면 '조화로움', 반대의 경우 '떠보인다'는 느낌을 줌
- 컬러와 일치할수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① 봄 월 메이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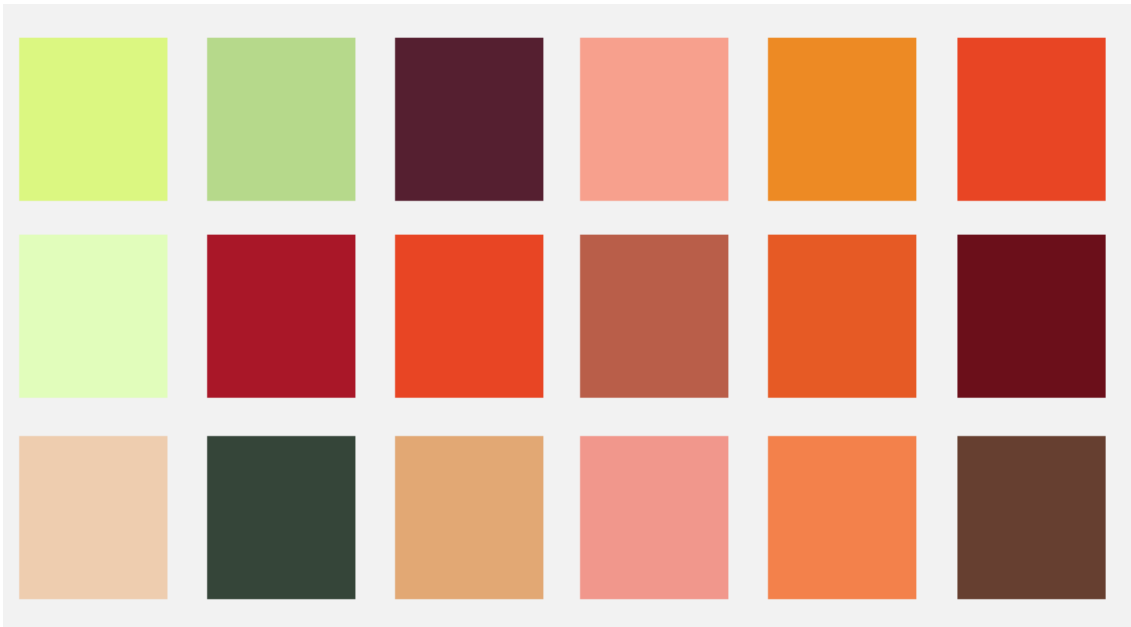
- 옐로우 베이스의 파운데이션, 베이스제품
- 오렌지, 코랄, 밝은브라운, 펄 섀도우제품
- 상큼&과즙팡팡 메이크업
- 블러셔 강조 브라운, 다크브라운 아이라이너&아이브로우



ex) 장원영 메이크업

② 가을 뽀뽀 메이크업

- 옐로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제품
- 23호 이상의 어두운 톤 파운데이션도 사용
- 음영 + 펄 메이크업
- 다크브라운, 누디계열, 오렌지 브라운, 다크레드, 버건디계열 등
- 쉐딩강조, 화장이 짙어질수록 매력적



ex) 청하 메이크업

③ 여름 쿨 메이크업

- 대체적으로 피부 톤이 밝은 경우가 많으며, 피부 톤을 강조하는 깨끗한 화장이 잘 어울림
- 핑크 베이스의 파운데이션이나 베이스 제품
- 17,13호 등 아주 밝은 톤도 해당됨
- 피부 표현 + 립 살짝, 펄을 많이 하지 X
- 핑크, 푸시아, 플럼, 라벤더, 연 그레이, 연 블루 계열 사용



ex) 정채연 메이크업

④ 겨울 쿨 메이크업

- 밝은/어두운 베이스가 모두 있는 계절
- 핑크 베이스 + 컨실러, (보라, 핑크, 블루) 톤업크림
- 13~25호까지 다양한 톤 존재
- 눈썹, 아이라이너, 립 부위 강조
- 원 포인트 & 다 포인트 메이크업 모두 가능
- 블랙, 다크그레이, 다크블루, 버건디, 레드, 청보라, 푸시아등 사용



ex) 유리 메이크업

Q) 메이크업, 일반적인 사계절로만 들어가면?

--> 어울리지 않는 메이크업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메이크업은 피부톤+사계절+이미지선+개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코칭해야 한다.

2. 이미지선

-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얼굴의 고유한 선
- 얼굴형 / 볼의 육감 / 눈매 / 쌍꺼풀 특징 / 눈꼬리 / 눈썹 / 코 / 입술등을 파악해 알 수 있으며, 크게 직선형 / 곡선형으로 나뉜다

	A	B
1.얼굴형	골격감이 느껴진다	골격감이 안느껴진다
2.볼살	등근감이 없고 볼이 훌쩍 들어가있다.	볼이 둥글게 나와있다
3.눈매	눈이 가로로 긴 편이다	눈이 동그란 편이다
4.쌍꺼풀특징	무쌍 혹은 속쌍꺼풀	쌍꺼풀이 진하고 두꺼운편
5.눈꼬리	위로 올라가 있다	아래로 처져 있다
6.눈썹	각진/일자 눈썹	부드러운 아치형 눈썹
7.코	코대가 직선	코끝이 둥근 모양
8.입술	(입술이 작고)얇은편	(입술이 크고)도톰한 편

A가 7-8개 이상: 직선형

A가 3-6개 : 혼합형

A가 2개 이하: 곡선형

3. 직선형/곡선형/혼합형

① 직선형 메이크업

- simple, chic, cool, clean, modern, sexy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색상의 대비감을 크게 주어 메이크업 하는 것이 효과적
- 눈썹, 눈매, 립 등에 포인트를 준다
- 스모키화장도 잘 어울리는 편이다
- 턱, 코 쉐딩을 강조해도 좋다
- 대체적으로 질감 매트 > 글로시



② 곡선형 메이크업

- Cute, lovely, friendly, soft, gorgeous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색상의 대비감을 적게 주어 메이크업 하는 것이 효과적
- 전체적인 톤을 맞추는 화장을 추천 -> ex) 코랄, 브라운, 피치 등
- 스모키화장이 덜 어울리는 편
- 쉐딩보다는 광을 내는데 집중하는 편이 좋다
- 대체적으로 질감 매트 < 글로시



③ 혼합형 메이크업

- 혼합형은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 색상의 대비감은 적절하게
 - 블랙, 브라운을 섞는 것도 가능하다.
 - 스모키화장 시 색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라이너로 눈매 강조하기
 - 매트+글로시를 적절히 섞어주는 것이 좋다
- ex) 피부는 세미 매트+립은 글로시/ 피부는 광+립은 벨벳 질감



KCLS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2강. 퍼스널컬러-메이크업2

1. 메이크업 시 고려사항

- 고객의 선호도(자연스러운/커버 집중/포인트 메이크업)
- 피부 톤 / 이미지선
- 질감 : 매트 / 세미 매트 / 글로시
- 펄의 유무

2. 질감

[질감선택시]

- 원하는 타입이 어떤지 사전에 물어본다
- 기미, 잡티 등 피부 커버를 어느 정도 원하는지 파악 한다
- 육안 진단 시, 피부가 땡땡해 보이는지 / 피부가 얇은지확인
- 볼을 살짝 잡아당겨 보았을 때
두껍고 안 늘어나는지 / 얇고 잘 늘어나는지 : 피부 상태를 파악

① 파운데이션

● 매트

- 피부 발색 시 착색, 밀착력이 높아 커버에 집중하는 고객층이 희망
- ‘화장했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준다
- 피부가 두껍고, 땡땡하면서 탄력이 높을수록(잘 안 늘어날수록)매트 화장이 잘 어울린다
- 퍼프사용 시 가장 효과적
- 화장을 장시간 했을 시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 직선형, 혼합형들에게 대체적으로 잘 어울린다



● 세미매트

- 피부 발색 시 착색, 밀착력이 적당하여 다양한 고객층이 희망
- 스파츨러나 파운데이션 붓, 퍼프 등 도구를 활용하여 파운데이션을 발색시 표현력이 ↑
- (보라/초록/블루) 톤업크림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적
: 노란 끼, 홍조를 잡을 때 추천
- (커버가 적당한)직선형, 혼합형, 곡선형들에게 대체적으로 잘 어울린다



● 글로시

- 피부 발색 시 착색, 밀착력이 낮아 가벼운 화장을 원하는 고객층이 희망
- ‘자연스럽다-, 투명하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준다
- 피부가 얇고, 기미 잡티가 적으며 잘 늘어날수록 글로시 화장이 잘 어울린다
- 스파츨러 도구 사용 시 가장 효과적
- 화장을 장시간 해도 답답하다는 느낌이 가장 적다
- 곡선형, 혼합형들에게 대체적으로 잘 어울린다



② 립스틱

● 매트

- 밀착력, 착색력이 좋은 제품
- 장시간 지속 시 건조함을 느낄 수 있고, 각질 부각이 잘 된다
- 풀립에서 좀 더 강점
- 입술이 작을 경우 풀립으로 바르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 직선형은 풀립, 혼합형과 곡선형은 립 붓을 활용해
그러데이션이나 베이스 사용을 추천(※ 양 조절)
- 대표적인 브랜드 MAC / NARS / 롬앤



● 벨벳틴트

- 밀착력, 착색력이 좋은 제품
- 풀립, 그라데이션 둘다 활용하기 좋다
- 최근 5년 사이 많이 출시된 틴트제품
- 모든 유형에 사용하기 좋은데 직선형은 풀,
곡선형은 베이스나 그라데이션으로 연출하는 것을 더 추천
- 대표적인 브랜드 3CE / 페리페라/ 롬앤



● 글로우 틴트

- 밀착력, 착색력은 다소 낮은 편이고 잘 지워진다
- 그럼에도 자연스러운+생기 있는 화장을 원할 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풀립 활용도가 더 좋으며, 그라데이션은 글로우의 특성상 티가 잘 나지 않는다
-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출시된 유형
- 직선형보다는 혼합형이나 곡선형에 좀 더 추천
- 작은 입술의 경우 글로시립을 컬러에 맞춰 풀로 발색할 경우, 얼굴 하관에 볼륨감을 주어 작은 입술 보완 및 이미지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 대표적인 HERA / 디올/ 롬앤



3. 펠의유무

- 요철이나 잡티가 많은 피부 < 잡티가 적은 피부
- 눈썹과 눈 사이 눈두덩이, 좁은 사람 < 넓은 사람
- 애교 살이 두툽한 사람
- 눈 언더메이크업이 잘 어울리는 사람(+속눈썹)
- 컬러렌즈를 함께 착용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3강. 퍼스널컬러-배색1

1. 배색이란

: 두 가지 이상의 색을 목적과 기능에 맞는 미적 효과를 질서 있고 균형 있게 배합하여, 복수의 색채를 계획하고 배열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운 감정을 주는 미적 효과를 말한다

배색 시 조명의 기술적 조건, 바탕과 재질의 관계, 색상과 색소 등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그 색과 인접한 색과 관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색채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그 배합에 의하여 결정된다

조형미적인 효과와 함께 배색이 목적, 기능에 따라서 제품, 그래픽디자인 기업 로고 등에서 중요시된다

효과적인 배색을 위해서는 색채 이론에 기초하여 응용하거나 색채 심리를 고려한다

이 배색은 퍼스널 컬러 후 옷을 코디할 때 특히나 활용이 많이 된다

패션 코디의 경우 단색만 활용하는 경우는 적고, 대부분의 경우 다른 색과 배색된 상태로 '조화로움'을 살피기 때문에 퍼스널 컬러를 더욱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색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단, 배색 시 형태와 재질, T.P.O를 고려해서 배색해야 한다)

2. 배색이론(배색의 원리)

① 저드의 조화론(미국의 색채 학자, 1900~1972)

: “색채 조화는 좋고 싫음의 문제이며, 정서반응은 사람에 따라 다르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오래된 배색에 싫증이 나면 어떠한 변화라도 좋게 생각하는 일이 있으며, 반대로 원래 무관심하던 색의 배합을 자주 보고 있으면 좋게 생각하는 일도 있다”라고 하면서, 다음의 4요소로 정리하였다.

▶ 질서의 원리 : 색 공간에서 일정한 법칙에 따라 선택한 색들과 같이

질서있는 계획에 의해 규칙적으로 선택한 색채는 조화롭다
ex) 점점 어둡다. 점점 밝다 등

▶ 유사성의 원리: 배색된 색들이 서로 공통되는 상태와 속성을 가질 때 조화롭다

ex) 유사톤, 유사색, 깔 맞춤 등

▶ 친근감의 원리: 자연계와 같이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색은 조화롭다

▶ 명료성의 원리: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애매하지 않고 명료한 배색이 되어 조화롭다

ex) 색상이 뚜렷하다, 고명도, 고채도이다



질서의 배색



유사의 배색



친근감의 배색



명료성의 배색



② 요하네스이텐의 조화론

: 노랑, 빨강, 파랑의 1차 색을 기준으로 그 사이에 혼합 색인 2차 색

즉, 주황, 보라, 초록을 배치한다

그리고 다시 1차 색과 2차 색 사이에 3차 색을 배치하여 만든 12색상환을 말한다.



- ▶ 2색 배색((dyads) - 보색으로 배색하면 조화를 이룬다
- ▶ 분열 보색(split complementary) - 인접 보색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보색의 양쪽 가까운 색으로 배색하면 조화를 이룬다
- ▶ 3색 배색(triad) - 색상환을 3등분 한 위치에 있는 색으로 배색하면 조화를 이룬다
- ▶ 4색 배색(tetrads) - 색상환을 4등분 한 위치에 있는 색으로 배색하면 조화를 이루며, 기본으로 2조의 보색 배색을 맞춘 배색도 조화를 이룬다
- ▶ 5색 배색(pentads) - 색상환을 5등분 한 위치에 있는 색으로 배색하거나 3색 배색에 흰색과 검은색을 더한 5색의 배색을 하면 조화를 이룬다
- ▶ 6색 배색(hexads) - 색상환을 6등분 한 위치에 있는 색으로 배색하면 조화를 이룬다. 또 3조의 보색 색상에 의한 6색 배색이나 4색 배색에 흰색과 검은색을 더한 6색 배색도 조화를 이룬다

- ▶ 주조색: 배색 시 전체적인 느낌을 전달하는 주가 되는 색
색채계획에 있어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
분야별로 선정 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전체의 느낌을 전달하고 색채 효과를 좌우하게 된다
- ▶ 보조색: 주조색 다음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며 보조 요소들을 배합색으로 취급함으로써 변화를 주는 역할
약 25% 내외 정도의 면적을 차지한다

- ▶강조색: 디자인 대상에 악센트를 주는 포인트 역할을 하는 색
시각적인 강조나 면의 미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되고 전체의 약 5% 정도
내외를 차지한다.

3. 배색의 구조: 색상/톤

① 동일색상 배색

: 0~15° 색상환 상에서

같은 위치 또는 근접한 색상끼리조합한 배색

동일 색상의 배색은 부드러우며 은은한 느낌을 연출할 때 사용하는데 차분함,
시원함, 솔직함, 정적임, 간결함의 느낌이 든다
다만 너무 온화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② 유사색상 배색

: 30~60° 색상환 상에서

하나 or 두 개 떨어진 색상끼리 조합한 배색

인접한 색을 이용하는 배색 방법으로,

유사 배색은 색상 차가 적기 때문에 톤의 차를 두어 명쾌한 분위기의 배색을
시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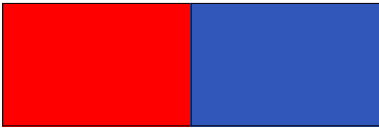
③ 대조색상 배색(=반대색상 배색)

: 120~165° 색상환 상에서

네 칸 이상 떨어진 색상끼리조합한 배색

반대 색상의 배색은 강렬한 이미지를 주며, 색상 차가 크기 때문에 톤 차를 적
게 주어 배색한다

빨강과 청록의 조합등 색상환에서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색들의 배색으로,
화려하고 개성적이며 대담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강함, 예리함, 동적임, 화려
함, 자극적이다



④ 보색 배색: 색상환에서 반대한 색과의 배색, 눈에 가장 잘 띄는 배색이며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강한 인상을 남긴다



⑤ 톤인톤 배색: 동일한 색조(톤) 내에서 다른 색상끼리 배색

⑥ 톤온톤 배색: 동일 색상에서 명도를 다르게 두어 배색
(보통 명도 차를 크게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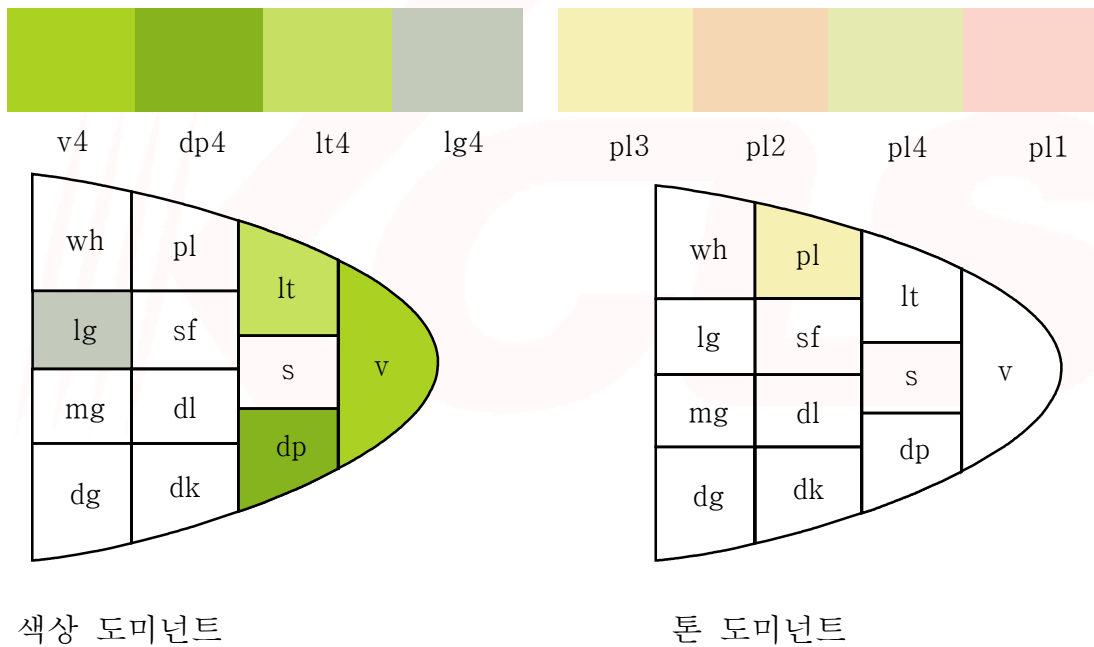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4강. 퍼스널컬러-배색2

1. 배색효과

① 도미넌트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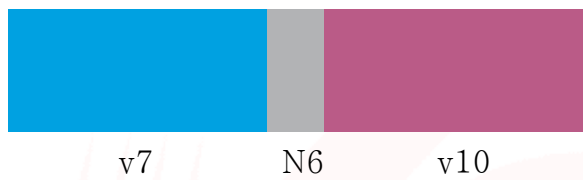
: ‘도미넌트’란 지배적이다, 우세하다 등의 의미로, 색이 가지는 여러 속성 중 공통된 요소를 갖추어 전체 통일감을 부여하는 배색
특히 여러 색을 배색할 경우 통일감이나 융합된 느낌을 표출할 때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는 이러한 효과를 도미넌트 효과라 한다

도미넌트 배색은 색상에 의한 도미넌트컬러 배색과 톤(명도와 채도)에 의한 도미넌트톤 배색으로 구분되며, 배색 전체를 지배적인 요소로 통일함으로써 이미지의 공통성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② 분리 배색(Seperation)

: ‘세퍼레이션’은 분리시키다, 갈라놓다 등의 의미로, 두 가지 색 또는 많은 색의 배색 관계가 애매하거나 대비가 너무 강한 경우에 접하게 되는 색과 색 사이에 다른 한 색을 분리 색으로 삽입하여 배색 효과를 분명하게 하는 배색이다
분리 색으로 주로 하양, 검정, 회색을 사용하며 제품에 분리 색이 쓰일 경우 금색, 은색 등의 메탈릭컬러가 쓰이기도 한다.



③ 강조 배색(Accent)

: 단조로운 배색에 대비되는 색상이나 톤으로 포인트를 주어 전체의 상태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강조색을 사용한다

강조색은 도미넌트컬러와 대조적인 색상이나 톤을 사용함으로써

강조 포인트를 부여하여 배색 전체의 효과를 짜임새 있게 한다

강조 배색은 전체가 평범하고 대조한 배색에 대해 큰 변화를 준다든가, 부분을 한층 강하게 하여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s7

dp7



s7

pl3

dp10



v3

v4



v3

v9

v4

④ 그라데이션 배색(Gradation)

: 점점 명도가 낮아지거나 순차적으로 색상이 변하도록 배색하는 것
연속 배색 또는 점이적인 배색이라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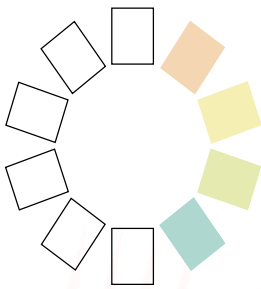
색상, 명도, 채도, 톤의 변화를 살린 그라데이션이 있으며, 리듬감이 있고 움직임의 효과를 표현하는 배색이다. 색채가 조화되는 배열에 따라서 시선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하고, 3색 이상의 다색 배색에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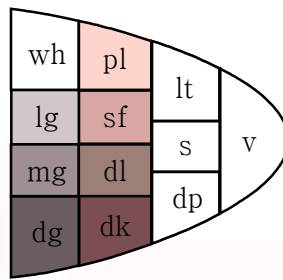
p12 p13 p14 p15



pl1 sf1 dl1 dk1



색상 그라데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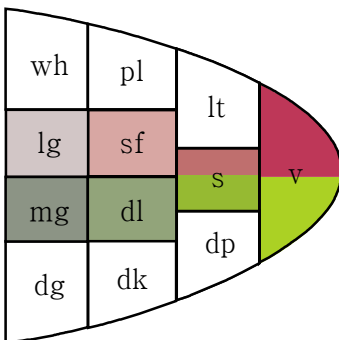
명도 그라데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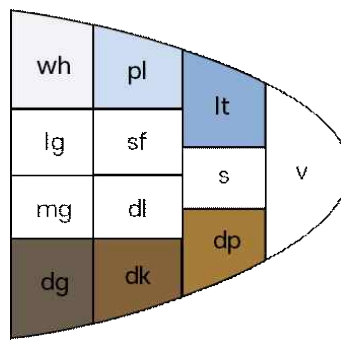
lg1 sf1 s1 v1



wh8 pl8 lt8 v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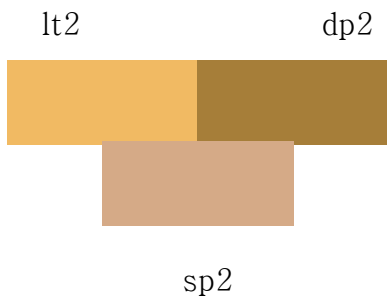
채도 그라데이션



톤 그라데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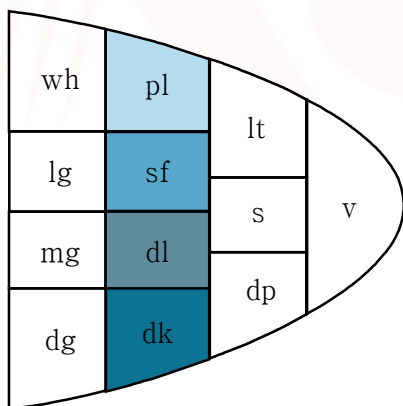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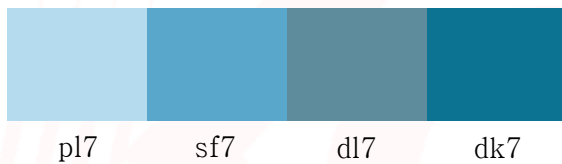
⑤ 반복배색(Repetition)

: 2색 이상의 배색을 되풀이하여 일정한 질서를 주는 배색 방법
 통일감, 융화성을 높여준다
 체크, 바둑판무늬, 타일의 배색 등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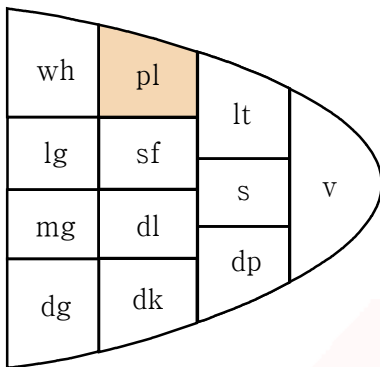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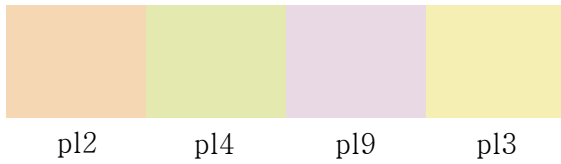
⑥ 톤온톤배색(Tone on Tone)

: 같은 색상 배색에서 명도 차를 크게 설정하는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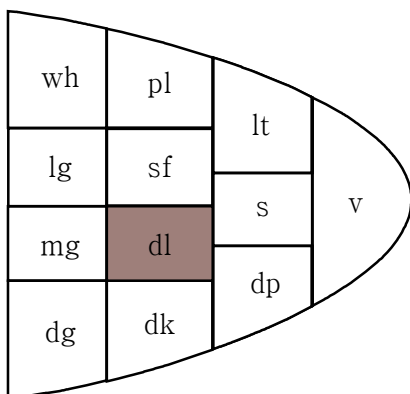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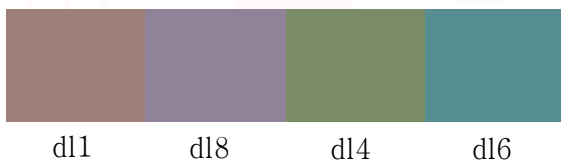
⑦ 톤인톤 배색(Tone in Tone)

: 같은 색조(톤)에서 다른 색상을 쓰는 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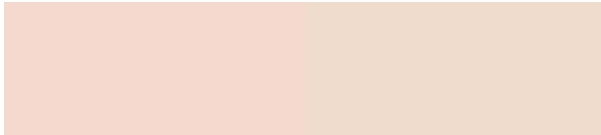
⑧ 토널 배색(Tonal)

: 중명도-중채도인중간 색조의 dull 톤을 중심으로 한 배색 기법
배색의 느낌은 톤인톤배색과 비슷한 느낌
색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차분한 톤의 이미지가 강조되는 배색 기법



⑨ 까마이외 배색(Camaie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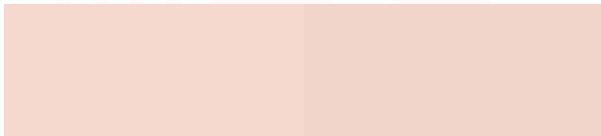
: 카마이외배색이란 거의 동일한 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여 언뜻 보면 같은 색으로 보일 정도로 미묘한 색차의 배색을 말한다
색상의 차이도 톤의 차이도 거의 비슷해 뚜렷하지 않은 애매한 배색으로 톤 인 톤 배색과 비슷하나, 변화 폭이 매우 적다



까마이외 배색

⑩ 포까마이외 배색(Faux Camaieu)

: Faux란 '모조, 가짜의'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어
까마이외배색에서 색상, 톤에 약간의 변화를 준 배색 방법
온화한 느낌을 주는 배색을 총칭하며,
다른 소재를 조합함에 따라 생기는 미묘한 색의 효과를 말하기도 한다.



포 까마이외 배색

⑪ 비콜로 배색(Bicolor)

: 두 가지 컬러 팔레트로 만드는 배색, 여러 나라 국기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분명하고 상징성이 강한 배색에 많이 쓰인다
주로 하양과 채도가 높은 vivid 톤의 색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대비 효과와 단정한 느낌을 준다.

⑫ 트리콜로 배색(Tricolor)

: 3색 배색, 변화와 리듬 적당한 긴장감을 주는 것이 특징이며
비콜로배색과 같이 상징성이 강한 국기들의 배색이 해당된다
3색 색상, 톤의 조합에 의해 명료성이 강한 배색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특징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5강. 이미지스케일

1. 이미지스케일이란?

① 이미지란? 라틴어 이마고(imago)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방하다’란 뜻을 가진 라틴어 ‘이미타리(imitari)’에서 파생한 것이다

이미지란 인간이 어떤 대상에 대해 갖고 있는 주관적 지식이자 신념, 인상의 집합으로 인지적 측면뿐만 아니라 감정적, 행동적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의 눈에 비치는 자신의 형상을 총칭하는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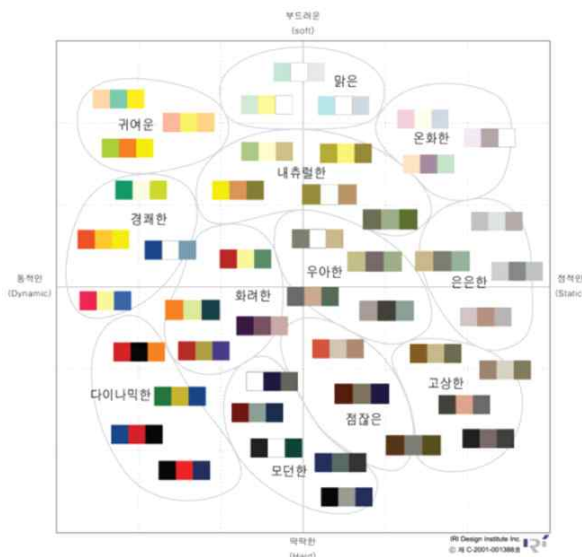
② 이미지 스케일이란? 이미지 스케일은 다양한 색이 가지는 감정 효과, 연상과 상징, 공감각, 전달 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조사하여 특정한 언어로 객관화 시켜서 구성한 이미지 공간을 말한다

이미지 스케일은 감성 배색이나 색채 계획과 디자인을 진행할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 되며, 색에 대하여 객관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미지 스케일은 개인, 국가, 문화, 양식, 환경 등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미지 공간은 주제의 특성에 맞는 이미지 공간을 제작하여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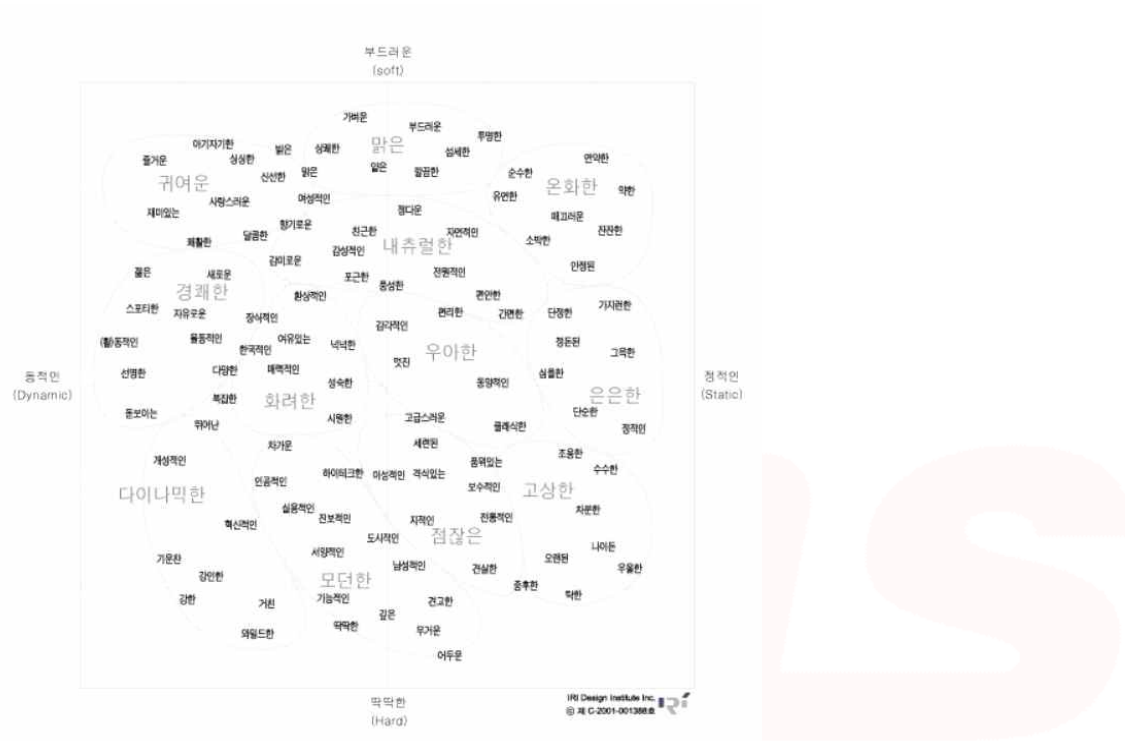
2. 이미지스케일 종류



① I.R.I 이미지 스케일

: 1992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색채 디자인 연구소인 I.R.I 색채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사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SD)법을 실시하여 한국인이 배색 이미지 공간을 만든 것이다

이미지 스케일은 한국에서 발행한 배색, 색 조합 이미지 형용사 스케일이다.



양 끝의 축은 동적인-정적인 / 부드러운-딱딱한 으로 되어있고 그 안에 다양한 형용사가 담겨 있다

밝은, 귀여운, 온화한, 내추럴한, 경쾌한, 화려한, 우아한, 은은한, 고상한, 점잖은, 모던한, 다이내믹한 총 12개의 대표 키워드들이 있다

대표 키워드 주변에는 대표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형용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② 일본 고바야시 이미지 스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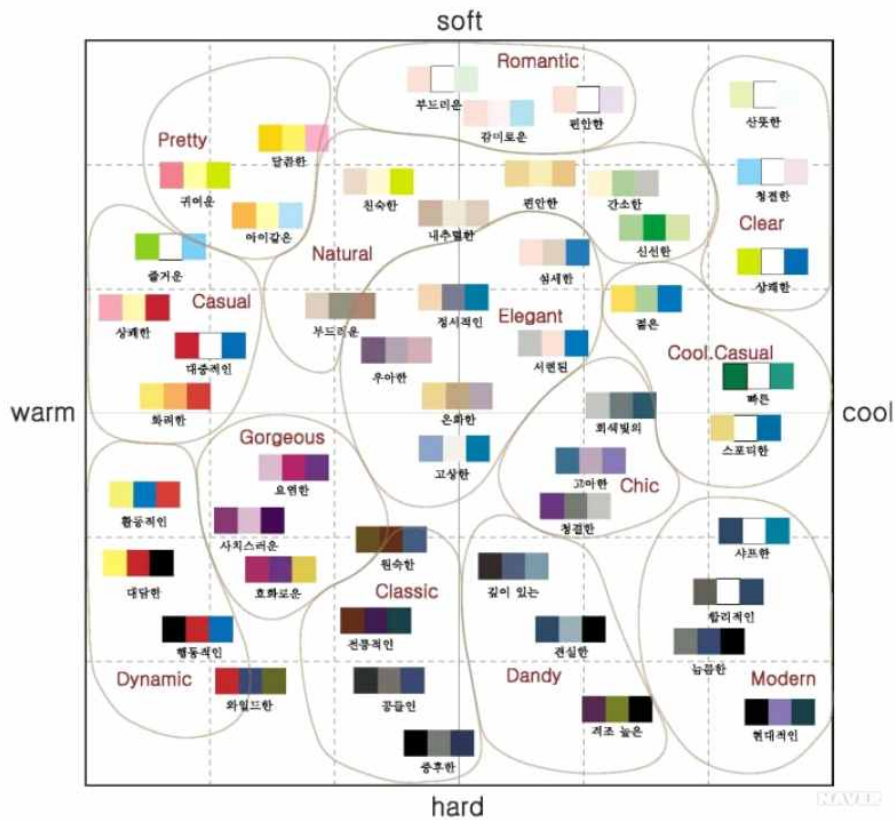
: 1967년 1월 20일에 창립한 일본 컬러 디자인연구소에서 만들어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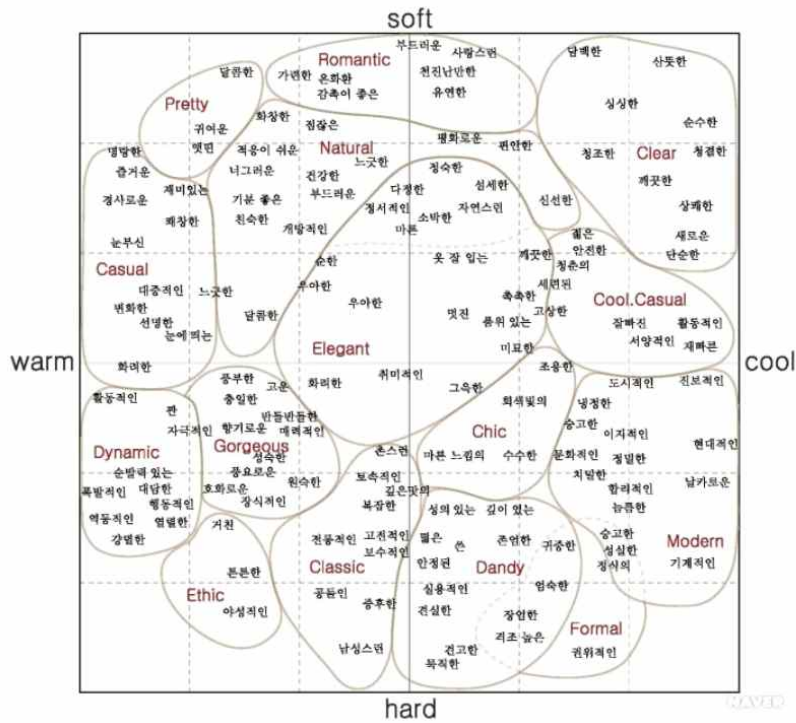
일본 배색 이미지 스케일

한국과 비슷하나 차이가 있다면 가로축 동적인-정적인이 아닌, 워-쿨의 축으로 되어있다.

Romantic, Pretty, Clear, Natural, Cool Casual, Chic, Elegant, Casual, Dynamic, Gorgeous, Classic, Dandy, Modern
총 13개의 대표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다

역시 SD법으로 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으며, 대표 키워드 주변에는 대표 키워드와 관련된 다양한 형용사들이 자리 잡고 있다.





3. 대표이미지

① Romantic

-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pale, light, whitish 톤이 주를 이룬다
- 배색은 분홍, 노랑 등을 주조색으로하여 명도와 채도를 약간씩 낮춘 색채 등을 선택하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더욱 잘 나타낼 수 있다.



② Pretty

- ‘귀여운’, ‘소녀소녀한’, ‘달콤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pale, light, soft 톤이 주를 이룬다
- 배색은 소프트 톤, 라이트 톤, 페일 톤의 기본 색상의 반대 색상인 차가운 계열인 파랑, 보라와 같은 색상을 함께 하면 사랑스럽고 달콤한 이미지가 표현된다.



③ Elegant

- ‘우아함’, ‘기품 있는’, ‘고상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soft, lightgrayish 톤이 주를 이룬다
- 인디언핑크, 자주, 보라등의색상이 잘 어울리며 배색은 채도가 낮은 부드러운 색조와 약간 어두운 톤의 보조색을조화시키면 섬세한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④ Classic

- ‘고전적’, ‘전통적’, ‘품격 있고 보수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deep, dull, grayish 톤이 주를 이룬다
- 갈색 계통을 중심으로 베이지, 다크브라운, 와인, 금색, 다크그린 등을 사용한다
- 배색은 따뜻한 색상을 위주로 배색하고 대비를 약하게 하며, 차가운 색을 사용할 때에는 금색과 같은 화려한 색상을 곁들여 장식하되 너무 지나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 진한 색과 어두운 색의 조화로 이미지를 표현한다



⑤ Natural

- ‘자연스러운’, ‘천연의’, ‘가공되지 않은’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dull, light grayish 톤이 주를 이룬다
- 배색은 자연색을 위주로 한 색상을 톤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게 사용하며, 무거운 분위기나 장식적인 화려한 색상을 피하여 전체적인 이미지를 포근하고 온화한 쪽으로 유도하여 배색하면 효과적이다
- 베이지, 아이보리, 노랑, 노란 연두, 올리브 그린, 초록, 갈색, 카키계열



⑥ Gorgeous

- ‘고급스러운’, ‘호화로운’,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strong, dull, deep 톤이 주를 이룬다

- 배색은 선명하고 깊이 있는 톤 사용 / 짙은 톤의 어두운 색조로 조화
- 금색, 베이지, 카멜, 빨강, 주황, 노랑, 딥퍼플(저채도)



⑦ Dandy

- ‘멋있는’, ‘남성적인’, ‘세련된’, ‘도회적인’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deep, grayish, dark grayish 톤이 주를 이룬다
- 배색은 무채색, 남색을 중심으로 어두운 색조가 잘 어울린다
- 화려함, 아름다움보다는 세련된 간결미 추구



⑧ Modern

- ‘현대적인’, ‘심플한, 깔끔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deep, dark 톤이 주를 이룬다

- 배색은 차가운 색을 기조로 하여 대담한 색상 대비와 명암 대비를 주어 미래 지향적 감각을 느끼게 한다.
또 이질적 색채와 과감한 조화를 시도하는 독특한 배색도 효과적이다
- 무채색 계열, 파랑 계열의 차가운 색이 중심이다.



⑨ Casual

- '활동적인', '생동감 있는', '편안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 톤은 vivid, strong 톤이 주를 이룬다
- 배색은 밝고 선명한 색상 위주로 스포티하고 대비가 강한 배색으로 하되, 많은 수의 색상을 사용하면 오히려 이미지를 망칠 수 있으므로 2~3가지 색상을 한정시켜 젊고 밝은 느낌으로 연출한다
- 색상은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채도가 높은 1차 색이 잘 어울린다.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6강. 색채심리

1. 색채심리 특징

: 사람도 여러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듯이 컬러도 여러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또한 같은 컬러여도 나라마다 메시지가 다를 수 있다.

2. 색깔별 의미

① 빨강

긍정적 메시지: 힘, 흥분, 자극, 에너지, 따뜻함, 용기

부정적 메시지: 불안, 반항, 까다로움, 지배, 공격성

추천할 때:

시간이 빨리 흘렀다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ex) 맥도날드, 빨강 사용으로 회전율 높임

눈에 띄고 싶을 때

힘 있고 대담한 인상을 주고 싶을 때

동기부여받고 싶을 때

피해야 할 때:

피로도가 높을 때

긴장을 많이 할 때

<나라별 컬러의 의미>

동양(중국): 장수, 행운, 번영, 부, 결혼식 때 신부, 명절

서양: 정열, 욕망

인도: 순결과 사랑

남아프리카 공화국: 극단적 인종차별이 행해졌던

아파르트헤이트시대를 상징, 사별의 색

② 주황

긍정적 메시지: 재미, 따뜻함, 소화촉진, 육체적 편안함

풍요로움, 정열, 관능

부정적 메시지: 경솔함, 결핍, 좌절, 미성숙한

추천할 때: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싶을 때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넉넉하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피해야 할 때:

진중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때
집중력을 높여야 할 때

<나라별 컬러의 의미>

불교도: 영성, 평화
인도: 신성한 색
미국: 호박과 핑크의 상징
일본: 문명, 지식

③ 노랑

긍정적 메시지: 자존감, 낙천적인, 자신감, 행복감
부정적 메시지: 불안, 비이성적, 예민, 조바심

추천할 때:

자신감을 높이고 싶을 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피해야 할 때:

마음이 울적한 날
장시간 근무하는 직원들 대상 휴게실 만들 때
(밤에도 감정을 고양시켜 일의 피로도를 높임)

<나라별 컬러의 의미>

독일, 프랑스: 질투
유럽: 겁, 나약함, 배신
이집트: 사망자에 대한 애도와 슬픔
중국: 황제의 색
일본: 배신, 용기

④ 초록

긍정적 메시지: 평화, 안정, 보호, 회복, 휴식, 조화
부정적 메시지: 침체, 지루함, 단조로움, 부패

추천할 때:

몸(눈)과 마음에 안정을 찾고 싶을 때
친환경적인 제품 디자인을 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을 때

피해야 할 때:

지루함을 크게 느낄 때
인간관계 상처가 클 때

<나라별 컬러의 의미>

동양: 생식과 새로운 시작

미국: 돈, 환경

남아메리카: 죽음

아일랜드 : 행운

영국 : 질투/ 이슬람 문화권 : 낙원

⑤ 파랑

긍정적 메시지: 집중, 이성적, 정직, 믿음직한, 논리
부정적 메시지: 냉담, 냉정, 불친절, 차가움

추천할 때:

신뢰&전문성을 강하게 주고 싶을 때
(ex. 삼성 기업 로고)
집중력을 높이고 싶을 때
숫자와 관련된 상황, 업무가 있을 때

피해야 할 때:

추운 공간 & 식욕 증진이 필요할 때
(요식업 인테리어에는 맞지 않음)

<나라별 컬러의 의미>

힌두교 문화권: 크리슈나 신의 색, 사랑, 송고한 기쁨
서양: 슬픔, 우울한 기분과 관련
일본: 배우자에게 충실하다, 행운을 상징하는 색

⑥ 보라

긍정적 메시지: 예술성, 영감, 지혜
부정적 메시지: 과도한 내적 성찰, 열등감, 기복

추천할 때:

고급스럽고 화려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자아실현, 자기실현을 하고 싶을 때
예술적 영감이 필요할 때, 명상할 때

피해야 할 때:

고립되어 있을 때(우울감, 고립감심해짐)
현실감각을 회복하고 싶을 때

<나라별 컬러의 의미>

서양: 의리
로마: 황족, 황제
태국: 슬픔, 과부들의 상복 색

⑦ 분홍

긍정적 메시지: 돌봄, 온정, 공감, 사랑, 육체의 안정, 애정
부정적 메시지: 육체적 연약함, (애정) 결핍, 억제

추천할 때:

아이를 대할 때/유아복제할 때
여성성을 극대화하고 싶을 때
스스로를 응원하고 싶을 때

피해야 할 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운동할 때
(신체를 진정시키고 에너지 수축을 낮추게 함)
감정적으로 심하게 불안할 때

<나라별 컬러의 의미>

영어권 국가: 여자아이들의 색

태국: 화요일을 가리키는 색

중국: 이국적인 색

⑧ 갈색

긍정적 메시지: 안전, 진중함, 든든함, 신뢰, 자연친화적

부정적 메시지: 촌스러움, 지루함, 너무 무거운, 포기

추천할 때:

안정감과 지지가 필요할 때

회의 및 협력해야 하는 분위기

서재나 거실 인테리어를 할 때

피해야 할 때:

활동적인 직업을 할 때

무언가 포기하고 싶을 때

아이들 방(밤 잠 방해)

<나라별 컬러의 의미>

서양: 대지의 색, 출산, 자연, 온전함

일본: 힘, 내구성

인도: 망자에 대한 애도를 나타내는 색 중 하나

⑨ 흰색

긍정적 메시지: 순수함, 효율성, 청결함, 정확, 잠재 가능성

부정적 메시지: 고립, 결벽, 완벽주의, 차가움, 무신경, 고독

추천할 때:

감정 소모가 지나치게 많을 때, 질서 있고 싶을 때

핵심만 간결히 전달하고 싶을 때

깔끔하면서 질리지 않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을 때

피해야 할 때:

공간이나 생각이 고립되어 있을 때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무미건조하게 만든다)

<나라별 컬러의 의미>

서양: 순수, 순결, 평화, 선량함

중국: 죽음 상징

⑩ 검정

긍정적 메시지: 세련됨, 우아함, 견고함, 권위, 힘

부정적 메시지: 무게감, 차가움, 억압, 허무

추천할 때:

리더로서 혹은 확실한 권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세련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나를 잘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

피해야 할 때:

좁은 공간
(더 좁아 보이게 한다)
아이들을 상대할 때

<나라별 컬러의 의미>

서양: 사별, 애도

인도: '악귀의 눈을 피한다'는 의미

->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에 검은 점을 그림

일본: 신비, 밤의 색

아프리카: 경험, 지혜

스페인: 약속

⑪ 회색

긍정적 메시지: 중립, 중도, 겸손

부정적 메시지: 숨김, 에너지 고갈, 우유부단

추천할 때:

중립의 입장을 지키고 싶을 때
팀에 융화, 협력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피해야 할 때:

창의성이 필요한 공간 디자인
침실
(피곤한 채 일어날 수 있다)

<나라별 컬러의 의미>

서양: 노년, 따분함, 둔함

기독교: 죽은 사람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함



퍼스널컬러리스트 제17강. 퍼스널컬러 진단 과정

1. 퍼스널컬러 진단 과정

① 퍼스널 컬러 사전 질문지를 작성한다

< 사전 질문지 들어가는 항목 >

- 기초정보(이름/나이대/성별/직업&활동군)
- 퍼스널 컬러진단을받고자 하는 이유
- 좋아하는 색 / 싫어하는 색
- 내가 생각하는 나의 현재 이미지 / 원하는 이미지
- 평소 선호하는 스타일 / 화장 계열

② 진단자(코치)는 사전 질문지를 확인한 후, 퍼스널 컬러에 중요한 몇가지를 체크한다

- 육안으로 본 피부 톤
- 피부에 나타나는 특징(기미/잡티/좁쌀여드름/다크서클/색소)
- 헤어(염색 유무/탈색 유무)
- 눈동자 컬러(=홍채 컬러)
- 고객의 이미지

③ 코칭에 들어가기 전, 고객과 컨설턴트가 갖추어야 할 요소

< 고객 >

- 가능한 한 노 메이크업(최대 선크림까지)
- 액세서리/컬러렌즈/안경 등 미착용 권장
- 평소 사용하는 메이크업 제품, 자주 입는 옷 스타일 사진 3장 정도
- 최근 피부의 변화가 크거나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은 경우 (가급적 다른 날 코칭 받는 것을 권장)
- 옷에 흰 천 두르기 / 염색 모의 경우 머리를 가리고 진행

< 컨설턴트 >

- 햇빛이 들어오는 자연광, 오전 10-오후 3시 사이 코칭을 가장 추천한다.

- 야간 컨설팅 시 태양과 가장 유사한 조명으로 맞추어 진행한다
- 진단 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무채색 계열(검정/화이트)을 입는다
- 패턴 옷, 짙은 네일, 액세서리 등은 가급적 하지 않는다
- 고객이 편안하게 코칭 받을 수 있도록 의자 및 거울 각 조정,
- 부드러운 어조로 섬세하게 이야기하며 코칭하도록 한다.

< 컨설턴트 준비물 >

- 드레이핑천(PCCS / KS)
- 상반신이 비치는 거울
- 측색기, 헤어피스
- 메이크업 도구(파운데이션~립스틱 / 일회용 립붓)
- 흰 베이스 천, 카메라(+삼각대)
- 기타 필요한 도구

④ 퍼스널 컬러 코칭을 진행한다

- 육안 진단 & 측색기진단
- 최근 다양한 측색기가 코칭에서 사용되고 있다
- 그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측색기 'cube'
- 측색을 통해 피부 밝기 / 붉은 기 / 노란 기를 확인하고
- 웜톤/쿨톤을 예측해 본다

< 천 드레이핑시 유의사항 >

- 천이 얼굴 너무 가까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드레이핑시 고객에게 불필요한 스킨십을 하지 않도록 한다
- (터치 & 컬러를 잘 보기 위해 얼굴을 가깝게 가져가는 것)
- 천에 이물질이 묻거나, 심하게 구겨지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

- 헤어 컬러 / 스타일 / 액세서리 진단
- 헤어피스, 염색판, 얼굴형 분석, 스킨톤+손/귀의 모양을 함께 살펴보고, 각각에 맞는 헤어 컬러, 스타일, 액세서리를 함께 진단한다.

⑤ 퍼스널 컬러 코칭 결과 정리

- 최종 퍼스널 컬러 톤은 무엇인지
- 컬러+헤어+메이크업 -> 일체형 or 차이형인지, 분야별로 기준점 체크
- 컬러 기준점 중요 3요소 = 색상의 3요소(명도/채도/색상)

※ 코칭 시 유의할 점

- 고객이 좋아하는 색과 실제 어울리는 색이 다를 경우,
고객의 의견은 최대한 경청하되,
컬러 기준점을 설명해 주면서 객관적인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퍼스널 컬러 이론 ppt, 컬러천, 시각적 자료들
함께 준비하여 눈과 귀가 모두 즐거운 코칭이 되도록 한다
- 1:다수인원코칭 할 경우, 잡음이 많이 나지 않도록 코칭 유도
- 5명 이상의 강의에선 모두에게 컬러 코칭 해주긴 어려우므로
미니 체험 키트 준비

< 참고 문헌 및 출처 >

캐런 할러 지음, 안진이 옮김 '내 삶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언어 컬러의 힘'
(2019) (주) 월북

토미야마 마치코 지음, 조연재 옮김 '처음 만나는 퍼스널 컬러' (2020) (주) 지구문화

이은경/이선호/김영 지음, 2014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필기대비 완벽가이드
(2014) 한솔아카데미

10차시 출처

- 유튜브 밝은면 Bright side korea

11차시 출처

-로라메르시에

-렌즈타운

-TOPSTARNEWS

-보그

-SBS 펜트하우스

-보그코리아

-BH 엔터테인먼트

-아이오케이컴퍼니

-시세이도

-스토리제이컴퍼니

-유튜브 어썸미

12강 출처

-에스티로더

-나스

-조르지오 아르마니

-바비브라운

-랑콤

-헤라

-맥

-3CE

-imbc

-카리나 인스타그램

15강 출처

- I.R.I 색채연구소
- 네이버 지식백과 / COLOR: 색
- Allure KOREA
- 나연 인스타그램
- ELLE
- Fashion N
- Thursday Island
- 프라다
- GQ코리아
- 마리끌레르
- LACOSTE

